

역사 속의 오이라트인은 ‘서몽골인’이었는가?

몽골과 관계에 대한
오이라트의 독자성 연구

Were the historical Oirats
“Western Mongols”?
An examination of their
uniqueness in relation to the
Mongols

저자 | 이주엽(Joo-Yup Lee)
번역 | 최하늘 (한국외대 사학과)

▶ 이 번역논문은 [2021년 아카루트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역사 속의 오이라트인은 ‘서몽골인’ 이었는가? 몽골과
관계에 대한 오이라트의 독자성 연구*
(Were the historical Oirats “Western Mongols” ? An
examination of their uniqueness in relation to the Mongols)

이주엽(Joo-Yup Lee)**

*번역: 최하늘 (한국외대 사학과)

초록

본고는 오이라트인을 ‘서몽골인’ 이라 지칭하는 학술 관행에 대해 재고하기 위해 몽골인에 대한 오이라트인의 민족적 독자성을 논증해보았다. 몽골 제국의 해체 이후, 본래 칭기스 칸이 이끄는 원(原)몽골 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오이라트 집단은 비(非)몽골 집단들이 주류인 유목연맹 도르벤 오이라트(Dörben Oirat)로 발전했다. 칼막인과 현대 몽골공화국민에 대한 Y 염색체 DNA 검사 결과는 두 집단이 이질적인 기원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오이라트인들은, 비록 그들 스스로를 몽골어 사용 집단(Mongolic)로 여겼으나, 몽골인과는 별개의 민족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몽골인 역시 오이라트인을 외국의 적(qari daysun)으로 보았다. 중앙아시아의 칭기스조와 티무르조 사서들 역시 양자를 별개 집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오이라트를 흉노나 선비, 돌궐, 위구르, 키르기즈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민족으로 보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 Joo-Yup Lee, “Were the historical Oirats “Western Mongols” ? An examination of their uniqueness in relation to the Mongols” , *Études mongoles et sibériennes, centrasiatiques et tibétaines*, 47 (2016). URL: <http://journals.openedition.org/emscat/2820>; DOI: <https://doi.org/10.4000/emscat.2820>

『터키 총리 고문서고 보유 제국 문서(*Başbakanlık arşivi Name-i hümayûn defteri*)』와 『청실록(淸實錄)』를 확보하고 읽는 데 도움을 준 나의 친구 메틴 베지크올루(Metin Bezikoğlu)와 순투광(Shuntu Kuang)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중앙유라시아사 연구자.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단국대학교에서 몽골학으로 석사 학위를, 토론토대학교에서 「포스트 몽골 시기 중앙유라시아의 국가와 민족 형성」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토론토대학교에서 유목민족제국사와 몽골제국사를 강의해 왔다. 2017-18년 옥스퍼드 이슬람학 연구소(Oxford Centre for Islamic Studies)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지은 책으로 『몽골제국의 후예들』(책과함께, 2020)과 2017년 국제 중앙유라시아학회 최고 권위의 저술상인 CESS(Central Eurasian Studies Society) 도서상을 수상한 *QazaqıTq, or Ambitious Brigandage, and the Formation of the Qazaqs: State and Identity in Post-Mongol Central Eurasia* (Brill, 2016)이 있다.

들어가며

러시아 연방 소속 칼미크 공화국(Khalmg Tangch)에 거주하는 불교도 몽골어 사용(Mogolic) 민족인 칼미크인¹⁾과 중국 신장에 거주하는 토르구드(Torghud; 고전 몽골어 Torγuud; 오이라트 몽골어 Torγoud²⁾), 몽골공화국 서부 거주 자카친(ᠵᠠᠴᠠᠴᠢᠨ)과 올로드(Öölöd; 고전 몽골어 Ögeled)는 모두 역사적으로 오이라트(Oirat; 고전 몽골어와 오이라트 몽골어 Oyirad)라 알려진 유목민족의 후예이다. 비록 현대를 살아가는 오이라트의 후예들은 러시아와 중국, 몽골 공화국 등지에 흩어져 있으나, 오이라트인들은 포스트 몽골 시대 내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가장 강력한 유목기마전사였다. 에센 타이시(Esen Taisi; 재위 1439-55년)과 갈단 보속토(Galdan Bošugtu; 재위 1671-97년)와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배자들 아래에서, 오이라트는 비록 짧은 시기나마, 가공할만한 유목 제국들을 세워, 북원(北元; 1468-1691년)³⁾과 모굴 칸국(Moghul Khanate; 1347년경 - 1680년대), 우즈베크 칸국(Uzbek Khanate; 1501-1747년), 카자크 칸국(Qazaq Khanate; 1450년대 - 1848년) 등 이웃한 칭기스조 국가들을 괴롭혔다. 불가강 유역의 오이라트인, 즉 칼미크인들은 혼자서도 노가이 타타르(Noghay Tatars)를 포함한 유목민 이웃들을 17세기 중반부터 위협했다. 이를 두고 아불가지 바하두르 칸(Abū al-Ghāzī Bahādur Khan; 재위 1644-63년) 저, 아랍샤조(Arabshāhid)까지의 칭기스조사 『튀르크의 계보(Šejere-i Türk)』의 18세기 영역본 해설서는, 크림 타타르인이 “모든 타타르 족속들 가운데 가장 기강이 잘 잡혔지만, 칼마크인(Callmak)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용맹하다” (Abū l Ghāzī Bahāder 1729, p. 602)고 적었다. 만약 만청 국가(Manchu Qing state; 1644-1911년)이 준가르(Zunghar; 고정 몽골어 jĕgün ᠮᠠᠷ; 오이라트 몽골어 Zöün ᠮᠠᠷ) 칸국을 18세기 중반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칼마키아(Kalmakia)’라 불리고 있을 것이다.⁴⁾ 르네 그루세(René Grousset)가 투르크·몽골(Turko-Mongols)에 대해 적은 표현을 빌자면 (René Grousset, 1939, p. 10 [윤건이 주: 김호동·유원수·정재훈 1998, p. 34]), 오이라트인들은 분명 내륙아시아에서 기원한 최후의 “지배하는 종족, 제국을 만드는 민족”(les races de commandement, les nations impériales)이었다.

현대 문헌들은 몽골인과 몽골계 언어 및 역사 일부, 문화 일부, 종교(티베트 불교)를 공

1) 칼미크인은 17세기 중반 이후 카스피해 북서부에 거주하고 있다.

2) 본고에서는 다양한 표기원칙을 사용했다. 페르시아어와 오스만 튀르크어 단어의 경우,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Middle East Studies*의 표기원칙을 활용했으나, 오스만 튀르크어의 경우 ᠰ는 s, ᠨ는 h, ᠵ는 z, ᠬ는 ğ로 고쳐 옮겼다. 차가타이 튀르크어는 에크만 야노시(Eckmann János)의 표기원칙에 대체로 따랐다. 한자의 로마자 표기는 병음 체제를,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는 헵번 체제를 사용했다. 고전 몽골어와 중세 몽골어는 각각 앙투안 모스타르트(Antoine Mostaert)와 이고르 데 라케빌츠(Igor de Rachewiltz)의 전사법에 따랐다. 오이라트 문자의 경우 Omniglot의 전사법(<https://www.omniglot.com/writing/kalmyk.htm> 2022년 1월 21일 확인)에 따랐다. 오이라트나 준가르, 토르구드 등 이미 관행화된 영어 표기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사용하고, 괄호 속에 고전 몽골어나 오이라트 몽골어의 로마자 표기를 병기했다. [윤건이 주: 한국어 번역본에서 한자는 한국식 한자 표기를 사용하고, 일본어는 국립국어원의 일본어 표기법에 따랐다. 그외 외국어는 국립국어원의 표기 시안 내지 관행적인 표기를 사용했다]

3) 본고에서 북원은 1368년 중국을 상실한 이후 17세기 만청(滿淸) 국가에 의해 합병되기까지 몽골고원을 계속 통치한 칭기스 왕조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4) 18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여러 지도들에서 카자흐 초원은 튀르크어에서 오이라트를 지칭하는 ‘칼마크(Qalmaq)’의 땅이라 불리었다.

유하는 오이라트인 및 칼미크인을 ‘서몽골인(Western Mongols)’ 이라 지칭한다.⁵⁾ 그러나 오이라트인과 몽골인은 각기 다른 기원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포스트 몽골 시대에 별개의 민족 집단을 이루었다. 본고의 목표는 역사적 오이라트가 몽골과 비교하여 가졌던 고유성을 논증하여, 이들을 ‘서몽골’ 이라 부르는 관행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다.⁶⁾ 이를 위해 초기 오이라트가 가졌던 고유의 기원을 살펴보고, 이후 그들이 형성한 유목연맹, 즉 도르본 오이라드(Dörbön Oyirad; 고전 몽골어 Dörben Oyirad: 4 오이라트⁷⁾)의 고유성을 몽골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겠다. 이후 오이라트와 이웃했던 만주와 북원 몽골, 튀르크화된 칭기스조 울루스(즉, 유목민족)들이⁸⁾ 오이라트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오이라트인들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고는 역사학자들에게 역사적 오이라트가 ‘서몽골’ 이 아니라 흉노나 선비, 돌궐, 위구르, 키르기즈, 몽골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내륙아시아 유목민족 내지 연맹으로 취급하기를 제안한다.

오이라트인과 몽골인의 독자적 기원

초기 오이라트인: 비(非)몽골인

칭기스 칸이 1206년 몽골 울루스를 세웠을 때, 오이라트는 몽골고원 북서쪽 삼림지대에 거주했고, 본래 몽골고원 북동쪽에 거주했던 몽골인들과 함께 하나의 유목 집단을 구성하지 않았다. 13세기 칭기스 칸과 그의 조상들에 대해 다룬 몽골 역사서 『몽골비사』는 오이라트를 숲의 사람들(Ligeti 1971, p. 168: oy-yin irgen; de Rachewiltz 2004, 1, p. 849: hoi-yin irgen [윤진이 주: 유원수 2004, p. 433])이라 하며, 칭기스 칸의 신화 속 조상인 알란 코아(Alan Qo'a)의 후손이라 묘사된 몽골인들의 한 지파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de Rachewiltz 2004, pp. 2-3, 7-10 [윤진이 주: 유원수 2004, pp. 25, 31-34]). 오이라트는 대신 케레이트나 나이만과 같은 비(非)몽골계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이들은 오히려 칭기스 칸의 아들 조치(joči)가 1207년 복속시키길 명 받았던 숲의 사람들의 일종으로 이 역사서에서는 간략히 언급되었다 (de Rachewiltz 2004, 1, p. 164 [윤진이 주: 유원수 2004, p. 236]).

오이라트와 몽골이 가진 별개의 기원 내지 ‘몽골 제국 정복 이전’의 구별은 라시두딘

5) 예컨대 르네 그루세는 이들을 ‘서몽골인(les Mongols occidentaux)’ 이라 불렀다. (1939, p. 599 [윤진이 주: 김호동 · 유원수 · 정재훈 1998, p. 720]) 몽골인 학자들은 서몽골(Baruun Mongol)이라는 용어를 역사적 오이라트를 지칭하는데 사용한다. 예컨대, Jamsran 2003, p. 31, 33, 42, 119.

6) 본고는 민족성(ethnicity)에 대한 논의를 다루지 않는다. 본고의 목표는 역사적 오이라트의 정체성에 대해 오이라트인의 동시대인들이 가졌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오이라트와 몽골을 동일한 ‘민족(nation)’ 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들이 그들을 몽골로 보았는가, 몽골로 보지 않았는가가 관건이다. 이 논문을 통해 민족성과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두 몽골계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다른 접근법도 존재할 수 있다. 민족성이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어떤 맥락에서 오이라트와 몽골은 하나의 종족일 수 있고, 다른 맥락에서는 다른 종족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7) Dörbön Oyirad는 오이라트 사투리식 표기이다.

8) 몽골어 단어 울루스(ulus)는 ‘(특정 지배자에 복속된) 백성’ 또는 ‘국가’ 를 의미한다. Haenisch [1937] 1962, p. 163.

(Rashīd al-Dīn; 1318년 사망)이 몽골인 군주를 위해 적은 세계사, 『집사(*Jāmi' al-tavārīkh*)』에도 반영되어 있다. 라시두딘은 내륙아시아 유목집단을 4가지 종류로 분류했다.⁹⁾ 첫째는 ‘오구즈 집단(aqvām-i ūghūz)’으로, 여기에는 오구즈 등 여러 튀르크계 집단의 24개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 (Rashīd al-Dīn 1988, p. 29; 1998-1999, 1, p. 27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101]). 두번째 종류는 “오늘날 몽골이라고 불리는 투르크 집단들(aqvāmī az atrāk ki īshān-rā īn zamān mughūl mī-gūyand)”인데 여기에 속한 집단은 몽골로 불리기 이전에 고유의 집단명을 가지고 있었다 (1988, p. 47; 1998-1999, 1, p. 37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125]). 세번째 종류는 “각각 독자적인 군주와 수령이 있었던 투르크 집단들(mī az atrāk ki īshān nīz ‘alā-ḥidda, pādshāhī va muqaddamī dāshta-and)”로 이 종족에 속한 집단들은 2번째 집단, 즉 몽골과는 연관이 없었다 (1988, p. 87; 1998-1999, 1, p. 61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195]). 옹구트(Önggüt), 나이만(Naiman), 케레이트(Kereyid), 키르기즈(Qirghiz), 탕구트(Tangut) 그리고 위구르(Uighur)와 킵차크(Qipchaq) 등 칸국 내지 집단은 이 분류에 속했다 (1988, pp. 87-110; 1998-1999, 1, pp. 61-78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p. 195-248]). 몽골은 ‘옛부터 몽골이라는 명칭을 가졌던 투르크의 집단들(aqvāmī az atrāk ki dar zamān-i qadīm laqab-i īshān mughūl būda...)’으로 네번째 종류에 속했다 (1988, p. 111; 1998-1999, 1, p. 79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249]). 이 몽골 집단은 평민 몽골인을 구성한 두루킨 몽골(Dürlükin Mongols)과 알란코아의 후예인 니루운 몽골(Niru'un Mongols)로 나누어졌다. 쿵기라트(Qunqirat)와 망기트(Mangqut) 등은 전자인 몽골 집단이었고, 바를라스(Barlas)는 후자인 몽골 집단에 속했다 (1988, pp. 111-162; 1998-1999, 1, pp. 79-112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p. 249-341]).¹⁰⁾

중요한 점은, 라시두딘의 내륙아시아 유목민 분류에서, 오이라트가 몽골 종족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신 그들은 잘라이르 및 타타르와 같이 유목민의 두번째 종류에 속했는데, 라시두딘은 오이라트인이 몽골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했다. (1988, pp. 76-80; 1998-1999, 1, pp. 55-57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p. 180-85]) 게다가 라시두딘은 메르키트에 대해서는 “몽골의 일종이다(ṣanfī az mughūl-and)”이라고(1988, p. 71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171]), 케레이트에 대해서는 “몽골의 일종이다(nau'ī az mughūl-and)”라고 적었으나 (1988, p. 87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198]), 오이라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라시두딘은 또한 이란과 투란(Turan)에 있는 오이라트 장수들이 “남들은 모르는 그들의 기원과 계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1988, p. 79; 1998-1999, 1, p. 57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185]), 이 역시 오이라트와 몽골이 별개의 계보와 기원을 가졌음을 방증한다.

9) 『집사』의 qaum (복수형 aqvām)을 ‘부족(部族)’이 아니라 ‘칸국’ 내지 ‘집단’으로 옮겼는데, 이는 크리스토퍼 애트우드(Christopher P. Atwood)를 따른 것이다. 애트우드는 몽골 제국 이전 몽골고원의 사회·정치 단위가 ‘부족’이 아닌 ‘(유목)민족’이라고 파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Atwood 2013과 2015를 보라. 데이비드 스니스(David Sneath)는 내륙아시아 유목 사회가 ‘귀족적 질서(aristocratic orders)’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우두머리 없는 국가(headless states)’를 형성했다고 보아 (그 정의에 대해서는, Sneath 2007, pp. 2-5 참고), 마찬가지로 몽골 제국의 정복 전야의 몽골고원에 있던 정치체들을 ‘부족’이 아니라 ‘초원의 열강(steppe powers)’ 혹은 ‘칸국’으로 보았다 (Sneath 2007, pp. 29-30).

10) 바를라스와 쿵기라트, 망기트의 구성원은 포스트 몽골 제국 시대 중앙아시아에 각기 티무르조와 히바의 쿵기라트조, 부하라의 망기트조를 세웠다.

4 오이라트: 독자적 유목 연맹

13세기와 14세기를 거치며 몽골 제국에 통합되었던 내륙아시아 유목민들은 차가타이인(Chaghatays: 모굴, 티무르조¹¹⁾)와 조치 울루스(Jočid ulus: 우즈베크, 카자크, 타타르), 북원 몽골 등 여러 칭기스조 울루스 내지는 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몽골고원 서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오이라트는 주요한 비(非)칭기스조 울루스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이 현상에 중요한 예외가 된다. 15세기가 되자 오이라트는 명조(明朝)에 의해 중국에서 밀려난 칭기스조 칸들이 이끄는 몽골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몽골-오이라트의 경쟁에 대해서는, Jamsran 2010, pp. 497-507; Miyawaki 1984, pp. 136-173을 보라; 오이라트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는 Miyawaki 2003, pp. 141-151을 참고). 13세기의 선조(先祖)들과 달리, 15세기의 오이라트는 도르본 오이라트(Dörbön Oyirad) 즉 4 오이라트를 형성했는데, 대체로 원(原)오이라트 집단과 여타 비(非)몽골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새로운 오이라트 연맹은 포스트 몽골 세계의 칭기스조 울루스들과는 현저히 다른 구성을 보였다. 칭기스조 울루스들은 일반적으로 『집사』의 두를루킨 몽골(Dürlükün Mongols)과 니로온 몽골(Niru' un Mongols) 등 원(原)몽골의 지파들 및 몽골고원과 킵차크초원의 비(非)몽골 집단들로 구성되었다. 즉 현대 몽골 공화국의 경우 망쿠트와 콩기라트, 바야우트, 우신(Üšün)/우우신(Ü' üšin), 바아린(Ba' arin), 베수트(Besüt), 엘지긴(Eljigin), 카타긴(Qatagin) 등 원(原)몽골 집단들 및 잘라이르, 위구르, 나이만, 케레이트, 탕구트, 옹구트[앵구드(Enggüd)], 카라친(Qaračin: 킵차크의 일부. 카라친에 대해서는 Okada 1984, p. 150; Atwood 2004, p. 456을 보라), 알란[Alan, 아수트(Asud). 카라친과 알란은 모두 킵차크초원에서 옮겨졌다] 등 비(非)몽골 계통의 유목민들로 구성되었다 (현대 몽골 공화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Badamhatan 1987, pp. 26-52 참조).¹²⁾ 마찬가지로 차가타이와 우즈베크, 카자크, (크림) 타타르도 바를라스와 바린, 두글라트, 망기트, 쿵그라트, 우이슌(Uyshun, 우우신) 등 원(原)몽골 집단들 및 잘라이르, 케레이트, 나이만, 옹구트, 탕구트, 타타르, 위구르를 비롯한 동부 내륙아시아 기원의 종족들과 아르긴(Arghin), 킵차크, 캉글리(Qanqli), 알란[시린(Shirin)]¹³⁾ 등 킵차크초원에서 기원한 종족을 포함한 비(非)몽골 종족들로 구성되었다 (카자크와 우즈베크에 대해서는 Sultanov 1982, pp. 7-51; 티무르조에 대해서는 Manz 1989, pp. 154-165과 Ando 1992, pp. 66-217; 모굴에 대해서는 Mano 1978, pp. 49-52과 Yudin 2001, pp. 72-82; 크림 타타르에 대해서는 İnalçık 1955, p. 753과 Fisher 1978, p. 22를 보라).

반면 도르본 오이라트의 주요 집단인 토르구트와 도르보트(Dörböd; 고전 몽골어 Dörbed), 호이트(Xoyid; 고전 몽골어 Qoyid)는 기원에 따르면 비(非)몽골 계통이었다.¹⁴⁾ 예외는 14

11) 티무르조가 칭기스조 울루스 내지 집단에 포함된 것은, 그들이 차가타이 일문의 울루스에 속했기 때문이다. 울루시 차가타이(ulūs-i Jaghatây), 즉 차가타이의 울루스는 티무르조와 모굴을 망라한 개념으로, 이들은 모두 차가타이 칸(Chaghatay Khan)의 유목민 영민(領民)의 후예였다. 예컨대 티무르조 사가 샤라푸딘 알리 야즈디(Sharaf al-Dīn 'Alī Yazdī)는 “조치 울루스 전체(tamām-i ulūs-i Jūchī)”에 대비한 표현으로써 티무르의 신민(臣民)을 “차가타이 울루스 전체(tamām-i ulūs-i Jaghatây)”라고 불렀다 (1957, p. 206 [윤진이 주: 이주연 2020 p. 303]).

12) 따라서, 북원의 ‘몽골’은 13세기의 몽골에 비교하면 훨씬 이종(heterogeneous, 異種)적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Crossley 2006, pp. 59-66을 참고).

13) (크림반도) 시린의 기원에 대해 시린의 귀족인 압둘가파르 크르미(‘Abd al-Ghaffār Qīrimī)는 그의 크림 타타르 역사서에서 “아스의 지파(Åş kabilelerinden şūbe olan)”라고 적었다 (1924, p. 46).

14) 본래의 4 오이라트 집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중론이 분분하다. 예컨대 17세기 몽골어 연대기 『몽

세기 도르본 오이라트에 합류한 호쇼트(Xošout; 고전 몽골어 Qošud)였다. 몽골어와 오이라트어, 중국어 자료들에 따르면, 이들은 본디 칭기스 칸의 동생인 카사르(Qasar)의 후예들이 이끌던 몽골계 집단이었다 (Okada 1987, pp. 203-207; Wu 1941, pp. 185-186). 호이트는 원(原)오이라트 집단의 후예였고 (Okada 1987, p. 196), 토르구트는 케레이트의 후예였다.¹⁵⁾ 도르보트의 경우,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는 도르보트의 조상이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도르보트 기원 설화가 위구르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나이만은 갈라진 집단이고 도르보트의 영토는 나이만의 옛 고향이라 주장했다 (1987, pp. 197-201).¹⁶⁾ 사실 나이만은 위구르를 조상으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라시두딘에 따르면 13세기 초의 나이만 군주 이난츠 빌개 뷁귀 칸(Inanch Bilgä Bügü Khan)의 이름은 위구르의 조상으로,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뷁귀 칸(Bügü Khan)의 이름을 본딴 것이었다고 한다. (1988, pp. 97-98; 1998-1999, 1, p. 69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224])고 적었다. 요컨데, 원(原)몽골 집단들과 몽골 고원 및 킵차크초원에 살던 비(非)몽골계 집단들로 구성되었던 칭기스조 울루스들과 달리, 15세기 오이라트는 대부분이 오늘날 몽골 공화국 서부의 비(非)몽골계 집단들로 구성되었다.¹⁷⁾

골원류(*Erdeni-yin tobci*)』는 오겔레트(Ögeled; 오이라트 몽골어 Öölöd)와 바가투트(Baγatud; 오이라트 몽골어 Baatud), 호이트(Qoyid; 오이라트 몽골어 Xoyid), 케레누구트/케르구트(Kerenügüd/Kergüd: 키르기즈 혹은 케레이트.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를 4대 오이라트 집단으로 거론했다 (Saγang Sečen 1990, p. 47 [윤진이 주: 최학근 1985, p. 65] 을 보라). 18세기 오이라트 사서 『4 오이라트 역사(*Dörbön oyirodiyın töüke*)』는 도르본 오이라트가 올로드(Öölöd), 호이트(Xoyid), 바토드(Baatud), 바르고(Barγu), 부라드(Buraad, 부라트)를 비롯하여, 도르보트, 준가르, 호쇼트, 토르구트로 구성되었다고 전한다 (Gavang Sharav 1967, p. 74 참고). 만청의 자료들은 대체로 초로스(Čoros: 준가르), 도르보트, 호쇼트, 호이트(혹은 그 대신 토르구트)로 구성되었다고 적고 있다. 도르본 오이라트의 부락 구성과 그 기원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는 Okada 1987, pp. 181-211를 참조하라.

15) 토르구트는 지배 가문이 케레이트의 군주 옹 칸(Ong Khan)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본래 케레이트였다고 여겨지는 편이다 (Okada 1987, pp. 208-209; Wu 1941, pp. 188-189; Howorth 1876, p. 558).

16) 같은 근거로, 애트우드 는 도르보트를 지배한 초로스 씨족이 위구르의 후예였다고 주장했다 (Atwood 2004, p. 420).

17) 따라서, 다수의 오이라트 집단이 튀르크계 철록(鐵勒)의 후예이고, 케레이트 또한 튀르크계였다고 보았던 우치위(Wu Ch' i-yu)는 심지어 오이라트가 튀르크계 집단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다 (1941, pp. 217-219). 본고의 저자는 이 같은 추론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도르본 오이라트의 기원이 비(非)몽골에 있었다는 우치위의 문제의식은 공유한다.

	차가타이 (티무르조/모굴)	카자크	우즈베크	크림 타타르	복원 몽골
원(原)몽골계	아를라트(Arlat), 바린(Barin), 바를라스(Barlas), 베쉬트(Besüt), 두글라트(Dughlat), 쿡그라트(Qunghrat), 술두스(Suldus) 등	두글라트(Dughlat), 망기트(Manghit), 쿡그라트(Qunghrat), 우이쑤(Uyshun) 등	아를라트(Arlat), 바린(Barin), 바를라스(Barlas), 두르만(Durman), 망기트(Manghit), 쿡그라트(Qunghrat), 우이쑤(Uyshun) 등	바린(Barin), 키지부트(Cijivut), 망기트(Manghit) 등	바아린(Ba'arin), 바야우트(Baya'ut), 베수트(Besüt), 엘지긴(Eljigin), 카타긴(Qatagin), 망코트(Mangqut), 쿡기라트(Qonggirat), 우우신(Ü'üšin) 등
비(非)몽골계 (몽골고원)	잘라이르(Jalayir), 케레이트(Kereyid) 등	잘라이르(Jalayir), 케레이트(Kereyid), 메르키트(Merkit), 나이만(Naiman) 등	잘라이르(Jalayir), 케레이트(Kereyid), 나이만(Naiman), 오이라트(Oyirad), 왕귀트(Önggüt), 탕구트(Tangut), 타타르(Tatar), 위구르(Uighur) 등		잘라이르(Jalayir), 케레이트(Kereyid), 나이만(Naiman), 왕귀트[Önggüt = 앵구트(Enggüd)], 탕구트(Tangut), 위구르(Uighur) 등
비(非)몽골계 (킵차크초원)	아르긴(Arghin), 캉글리(Qangli), 킵차크(Qipchaq) 등	아르긴(Arghin), 캉글리(Qangli), 킵차크(Qipchaq) 등	아르긴(Arghin), 캉글리(Qangli), 킵차크(Qipchaq) 등	아르긴(Arghin), 킵차크(Qipchaq), 시린(Shirin: 알란) 등	아소트(Asud: 알란), 하라친(Qaračin: 킵차크) 등

표 1 칭기스조 울루스의 구성

	도르본 오이라트
원(原)몽골계	호슈트(Xošoud)
비(非)몽골계 (몽골고원)	부라트(Buraad = 부라트), 도르보트(Dörböd: 나이만), 호이트(Xoyid: 오이라트), 토르고트(Torghud: 케레이트) 등
비(非)몽골계 (킵차크초원)	

표 2 도르본 오이라트의 구성

칼미크인과 현대 몽골인에 대한 Y-DNA 연구

당연하지만, 최근의 Y-염색체 DNA 조사에서도, 현대 칼미크 공화국인과 현대 몽골 공화국인은,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지만, 유전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도르보드와 토르구트, 호쇼트로 구성된 칼미크인은 Y 염색체 하플로 그룹 C2b1a2(과거 C3c1으로 알려졌었음)이 높은 비중(38.7%)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크(카자흐)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하플로 그룹이다 (Malyarchuk et al. 2013, p. 3의 Table 1 참고).¹⁸⁾ 몽골공화국 서부에 거주하는 오이라트계 집단인 자하친(жақачи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Y-DNA 염색체 하플로그룹 가운데 C2b1a2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30%), 이는 C2b1a2가 (할하) 몽골인과 비교하여 오이라트계 집단을 나타내는 유전자 표지로 여겨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Katoh et al. 2005, p. 66의 Table 1을 보라; 이 표의 C3c는 C2b1a2와 같다).¹⁹⁾ 중요한 사실은, ‘동(東)’ 몽골인들 사이에서도 Y-염색체 하플로그룹 C2b1a2 (15-20%)은 오이라트계 집단에 비하면 그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현대 몽골 공화국의 사람들은 C2b1a2를 제외한 C2(과거에는 C3로 알려짐) 계열 하플로그룹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Zerjal et al. 2002, p. 474의 Table 3을 보라. 이 표의 하플로그룹 10이 하플로그룹 C2에 해당한다). 게다가, 가장 널리 퍼진 Y-염색체 하플로타입으로, 칭기스 칸의 혈통과 연관되어지는 일명 ‘Star cluster’는 몽골인들에게서 높은 비율(34.7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Zerjal et al. 2003, pp. 717-721; ‘Star cluster’는 C2에 속한다), 칼미크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1.67%) 하플로타입이다 (Derenko et al. 2007, p. 335).²⁰⁾ ‘Star cluster’는 카자크(카자흐)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비율(30% 이상)로 나타나는 데 (Abilev et al. 2012, pp. 79-89의 Table 4를 보라), 대부분이 우이슌(Uyshun)²¹⁾, 망기트, 쿵그라트 등 몽골계 기원을 가진 부락 출신이다. ‘Star cluster’가 실제로 칭기스조의 혈통에 속하든, 그렇지 않은 간에, 비(非)몽골 집단들로 구성된 오이라트인과, 칭기스조 및 ‘원(原)몽골’계 집단을 공유한 카자크(카자흐) 그리고 몽골 사이에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오이라트와 몽골이 유전적으로 구분됨을 보여준다. 요컨대, Y-염색체 DNA 조사 결과는 도르본 오이라트와 복원 몽골이 (최소한 지역적으로) 별개의 부계 조상을 가졌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조 붕괴 이후 3세기에 걸친 오이라트와 칭기스조 몽골 사이의 전쟁은 ‘서몽골’과 ‘동몽골’ 사이에서 벌어진, 동일 집단 내의 분쟁이 아니라, 두 개의, 별개의 유목 집단이 벌인 전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8) C2b1a2는 또한 알타이 카자크를 포함한 카자크(카자흐)의 주요 Y-DNA 염색체 하플로그룹이기도 하다. C2b1a2로 특징지어지는 알타이 카자크가 주로 나이만 및 케레이트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오이라트가 나이만과 케레이트의 후손이라는 데 대한 간접 증거일지 모른다 [카자흐 C2b1a2 (40-63%)에 대해서는 Dulik et al. 2011, pp. 2-3의 Table 1과 Table 2; Zerjal et al. 2002, p. 474의 Table 3을 보라. Table 3의 하플로그룹 36이 하플로그룹 C2b1a2에 해당한다].

19) 사실 C2b1a2는 에벤키 등 시베리아의 퉁구스계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

20) 알타이 카자크(카자흐)인에게는 8.3%, 알타이인에게는 3.4%, 부랴트인에게는 2.3%, 투바인에게는 1.9%로, 이 하플로타입은 칼미크인에 비해 자주 관찰된다.

21) 초칸 발리하노프(Chokan Valikhanov)는 우이슌을 몽골의 우신(Üüsin)과 동일한 집단으로 보았다 (Valikhanov 2009, p. 455). 발리하노프와 마찬가지로 현대 카자흐 역사학자 베임베티 바크티예비치 이르무하노프(Beimbet Baktievich Irmukhanov)도 현대 카자흐의 우이슌이 고대 오손(烏孫)이 아니라 몽골 우신의 후예라고 주장했다 (Irmukhanov 2006, pp. 95-101).

집단 \ 하플로그룹	C2b1a2	C2 (C2b1a2 제외)	'Star cluster' 하플로타입
도르보드(오이라트)	33.3%	5.5% / 24.3%	N/A
토르구트(오이라트)	46%	10.7 / 19.4%	N/A
호쇼트	37.8%	1.2%	N/A
칼미크 (계)	38.7%	17.4%	1.67%
자하친(오이라트)	30%	16.6%	N/A
우량하이(오이라트/튀르크계)	33.34%	25%	N/A
할하(몽골)	15.3%	41.18%	34.75%

표 3 Y-염색체 하플로그룹 분포

동시대인들이 바라본 오이라트인

중국의 명(明)과 만주의 청(淸)이 바라본 오이라트인: 몽골계 집단

별개의 기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이라트와 이웃한 중국과 만주는 오이라트를 몽골에 속한 집단으로 보았다.²²⁾ 중국의 정사(正史) 『명사(明史)』에는 오이라트와 복원 몽골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있는데, 오이라트[와랄(瓦剌)]은 몽골 ‘부락(部落)’으로 규정되었고 (Zhang Tingyu 1974, 328.8497 [윤진이 주: 송정수 2012, p. 804]), 달단(韃靼), 즉 타타르(Tatar)라 불린 복원 몽골은 “곧 몽골로, 옛 원(元)나라의 후에 (即蒙古, 故元後也)”로 규정되었다 (張廷玉 1974, 327.8463 [윤진이 주: 김선혜 2012, p. 671]). 오이라트를 몽골에 속한 집단으로 본 시각이 유목 집단의 기원을 그 직전에 몽골고원에서 존재하던 유목 집단에서 찾던 중세 중국의 관행을 반영하는지는 불분명하다.²³⁾

만청(滿淸) 국가 또한 오이라트를 넓은 의미에서 몽골계에 속한 집단으로 보았다 (‘몽골’ 정체성의 만청식 관념 내지 재창조에 대해서는, Crossley 2006, pp. 64-79을 보라). 예컨대 청에 복속한 오이라트인들은 ‘외 자삭 몽골(tulergi jasak monggo, 外札薩克蒙古)’의 아래로 조직되었다.²⁴⁾ 특히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5-96년)는 오이라트(토르고

22) 티베트인들은 오이라트를 소그(Sog), 몽골을 호르(Hor)라 불렀다 (예로는 Ñag-dBañ Blo-bZaṅ rGya-mTSho 2008, p. 151가 있다). 티베트인들이 위구르와 원대 몽골인을 부르는 데도 ‘호르’는 사용되었다 (Stein 1959, p. 189).

23) 예컨대 중국 정사에서 돌궐(突厥)과 철륵, 위구르 등 몽골고원을 차지했던 튀르크어를 사용한 집단들은 대개 흉노를 기원으로 두었다고 분류되었다 (돌궐과 철륵의 경우는, 李延壽 2003, 99.3285, 3303 [윤진이 주: 정재훈 · 최진열 2009, pp. 446-47, 543] 를, 위구르에 대해서는 劉昫 2002, 195.5195 [윤진이 주: 정재훈 2011a, p. 220]; 歐陽修 · 宋祁 2003, 217a.6111 [윤진이 주: 정재훈 2011b, p. 377] 을 보라). 범(凡)몽골어 화자 유목 집단인 거란과 해(奚)는 내몽골 동부에 해당하는 동호(東胡: ‘동쪽의 오랑캐’)의 옛 땅에 거주했는데, 동호를 기원으로 두었다고 분류되었다 (해는 魏徵 2008, 84.1881 [윤진이 주: 정재훈 · 최진열 · 김호 2009, pp. 345-55]; 歐陽修 · 宋祁 2003, 219.6173 [윤진이 주: 김성희 2011, pp. 654-55] 를, 거란은 歐陽修 · 宋祁 2003, 219.6167 [윤진이 주: 김성희 2011, p. 636] 을 보라).

24) ‘외 자삭 몽골’에는 할하와 오이라트 ‘부락들’이 포함되었다. ‘내 자삭 몽골(dorgi jasak

트)가 1771년 볼가 지방에서 귀환한 일을 축하하며 적은 시에서 오이라트를 몽골로 본 만주 왕조의 시각을 보여주었다.²⁵⁾ 이 시에는 “몽골의 겨레[族] 가운데, 우리 대청국의 백성[臣] 아닌 이 없네 (蒙古之族, 無不爲我大清國之臣)” 라는 구절이 있다.²⁶⁾

오이라트와 칼마크

포스트 몽골 시대 일부 중앙아시아²⁷⁾의 작가들은 오이라트와 복원 몽골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몽골고원의 유목민들을 칼마크(Qalmaq)라 불렀다.²⁸⁾ 예를 들어 복원의 권좌를 노린 칭기스조 왕자 타이지 오글란(Tāizhī Oghlan)이 티무르(Temūr; 재위 1370-1405년)에게 망명했을 때, 티무르조의 사가(史家) 샤라푸딘 알리 야즈디(Sharaf al-Dīn ‘Alī Yazdī)는 저서 『승전기(Ṣafarnāma)』에서 타이지 오글란의 국가와 그 신민에 대해 울루그 유르트(Ulugh Yūrt: 큰 유르트)²⁹⁾와 칼마크(Qalmāq)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57, 2, p. 33 [옮긴이 주: 이주연 2020, p. 680]).³⁰⁾ 16세기 중반 모굴 칸국의 역사서인 『라시드사(Tārīkh-i Rashīdī)』의 저자 무함마드 하이다르 두글라트 미르자(Muḥammad Ḥaidar Dughlāt Mīrzā)는 칭기스 칸의 ‘본래 거주지(maqarr-i aṣlī)’, 즉 몽골고원을 카라코룸(Qarāqurūm)과 칼마크(Qālīmāq)라 불렀다 (2004, p. 426; 1996, p. 188).³¹⁾ 무함마드 유수프 문시(Muḥammad Yūsuf Munshī)는 1704년 작성한 시반조(Shibanid)와 토카이티무르조(Toqay-Timurid) 우즈베크 국가에 대한 사서인 『무킴 칸 기(Tazkira-i Muqīm Khānī)』에서 ‘칼마크의 술탄들(salātīn-i qalmāq)’이 우구데이 칸(Ögödei Khan; 재위 1229-41년)의 후예라고 기록했다 (2001, p. 78).³²⁾ 아마 중앙아시아의 관행에 따라, 16세기 오스만 사가(史家) 셰이피 첼레

monggo, 內札薩克蒙古)’은 내몽골의 몽골 기(旗)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자삭(Jasaḡ; 한문 사료의 札薩克)은 대청 국가의 몽골 기(旗)를 대대로 계승하던 지도자를 부르는 말이었다.

25) 볼가 지방에 남은 오이라트인들이 바로 현대 칼마크인의 조상이다.

26) 『토르코트 ‘부(部)’의 복속을 기념하는 비석(Tuerhute bu guishun jishibei / 土爾扈特部歸順記石碑 / 土爾扈特部歸順記石碑)』을 보라. <http://baike.baidu.com/view/1641511.htm> (2022년 2월 12일 확인)

27) 본고의 중앙아시아는 서로는 카스피해부터 동으로는 중국의 신장까지, 북으로는 카자흐스탄부터 남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의 내륙 지방을 의미한다. 내륙아시아는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가리킨다.

28) 반면 19세기 후반 카자흐 사가(史家) 쿠르반알리 할리디(Qurbān-‘Alī Khālīdī; 1846-1913년)은 칼마크(Qalmāq)라는 용어를 오이라트와 몽골 양쪽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모호하지 않게 사용했다. 중앙아시아의 튀르크 역사를 다룬 『동방5사(Tavārīkh-i khamsa-i sharqī → 東方五史)』에서 그는 칼마크를 좁은 의미로는 오이라트인을, 넓은 의미로는 몽골인과 티베트인을 포함한 티베트 불교 신자를 지칭하는 말로 썼다 (Frank 2009, pp. 329-332).

29) 울루그 유르트(Ulugh Yūrt: 큰 유르트)는 몽골고원과 중국을 통치한 몽골 제국의 우두머리 울루스 [옮긴이 주: 한국학계에서는 ‘카안 울루스’라고 부른다]를 지칭한다. 이 울루스는 처음에는 우구데이 일문이 이끌었으나, 나중에는 톨루이(Tolui; 1192-1232년) 일문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30) 타이지 오글란에 대해 서술하며 니자무딘 샴이(Nizām al-Dīn Shāmī)는 복원을 히타이 왕국(mamlakat-i Khitāi)이라 지칭하고, 울루그 유르트(Ülugh Yūrt)라고도 불렀으나, 칼마크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1937, p. 12, 172). 폴 펠리오(Paul Pelliot)에 따르면, 칼마크라는 용어가 사용된 가장 오래된 사료는 14세기 중반 이븐 와르디(Ibn al-Wardī)가 적었다고 전해지는 아랍어 서적 『경이로운 진주(Kharīdat al-‘Ajā’ib)』이 아니라, 샤라푸딘 알리 야즈디의 『승전기』이다 (1960, p. 3).

31) 카라코룸(Qarāqurūm)은 몽골 제국의 수도였다. 어쩌면, 여기서 등장한 카라코룸과 칼마크는 각각 몽골고원 중심부와 몽골고원 서부를 가리키는 것일지 모른다.

32) 무함마드 유수프 문시가 준가르 오이라트 통치자를 칭기스조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원 몽골을 칼마크라 불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문시가 작업을 완수한 시점은 18세기

비(Seyfī Çelebī)는 몽골고원의 유목민들과 그 칭기스조 통치자 알툰 칸(Altūn Khan)을 칼마크(Qalmaḡ)라 불렀을 것이다 (1968, p. 70).³³⁾

그러나, 몽골고원의 유목민들이 포스트 몽골 시대 일부 중앙아시아 저자들에게 칼마크라 불리었다고 해서, 오이라트가 몽골과 동일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칼마크가 일반적으로 무슬림 튀르크에게 오이라트로 이해되기는 하였으나 (예컨데, Boyle & Wheeler 2016, Kalmuk), 오이라트(Oyirad)와 동일어는 아니었다. 칼마크의 의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설명 중 하나는 울루그 베그(Ulugh Beg; 1394-1449년)의 『4 울루스 사(Tārīkh-i arba' ulūs)』를 16세기 익명의 작가가 축약한 『투르크인의 역사(Shajarat al-atrāk)』에서 찾을 수 있다.

술탄 무함마드 우즈베크 칸(Sultān Muḥammad Uzbek Khan)이 그의 일(īl)과 울루스(ulūs)와 함께, 신의 가호를 받았을때, 사이드 아타(Sayyid 'Atā) 님께옵서는 그들 모두를 트란스옥시아나 지방으로 데려왔을때 사이드 아타의 축복 없이 남겨진 이들은 칼마크(Qalmāq)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뒤에 남은 이들' 을 의미한다. 누군가 "새로운 이들은 누구야?" 하고 물으면 사이드 아타와 술탄 무함마드 우즈베크 칸의 무리에 속해 떠난 사람들은 지도자이자 제왕 [pādshāh → 帝王]의 이름인 우즈베크를 대었다. 이러한 연유로, 그때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은 우즈베크(Uzbek)라 불리었고, 남은 사람들은 칼마크라 알려지게 되었다.³⁴⁾

압둘가파르 크르미(1924)도 1744년 저술한 크림 타타르 연대기 『역사의 기둥(Umdat al-ahbār)』에서 칼마크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었다.

이 몽골과 타타르 사람들에게서 나온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남아 있었기에, 말해지기를, 사실이기도 하지만, 타타르인들 가운데 칼마크라 불리는, 토르고트라고 알려진 이들은, 무슬림이 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다.³⁵⁾

초로, 이미 복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5세기 초 복원에 우구데이 왕통 계통의 칸이 일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칭기스조의 계보에 대한 문시의 지식이 한계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 하면, 문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예컨데, 문시는 조치가 4 아들을 두었다고 저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킴 칸 기』의 또 다른 사본에서는 조치에게 우루스 칸(Urus Khan)과 시바니 칸(Shībānī Khan), 두 아들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역시 오류이다 (Munshī 2001, p. 79, 79 note 14을 보라). 한가지 더 지적할 점은 티무르조 사가(史家)들이 우구데이 카안(Ögödei Qa'an)을 울루그 유르트의 첫번째 칸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데, Nizām al-Dīn Shāmī 1937, p. 12). 따라서 준가르 오이라트의 통치자가 우구데이 왕통이라는 문시의 서술은 착각이라고 여겨진다.

33) 여기서 등장한 알툰 칸이 16세기 후반기 복원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알탄 칸(Altan Khan; 1508-82년)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하다.

34) "chūn Sultān Muḥammad Uzbek Khān bā hamrahī-i īl va ulūs-i khūd vaṣil-i sa'ādāt va faẓl-i ilāhī gardīda-and ḥazrat-i Sayyid 'Atā tamāmī-i īshān-rā bi-jānib-i diyār-i māvarā' al-nahr āvard va az ānchi bī sa'ādātānī ki [...] ḥazrat-i Sayyid 'Atā [...] dar ānjā māndand mausūm bi-qalmāq shudand ki bi-ma'nī-i māndanī bāshad va az āncha mardumī ki bi-rifāqat-i [...]. Sultān Muḥammad Uzbek Khān 'āzīm shuda mī-āmadand har kasī ki az īshān mī pursīda-and ki īn āyanda kīst nām-i sardār va pādshāh-i khūd rā ki Uzbek būd mīgiriftand bidān sabab az ān zamān mardum-i āmada mausūm bi-uzbak shuda-and va mardumī ki mānda-and qalmāq gardīda-and" (Tizengauzen 1941, p. 266 [원문], pp. 206-207 [번역])

35) "iṣbu ḵavm-i moḡūl ve tātār-dan bir miḵdār ḵavm islām-dan bī-behre ḵalmaq gerek dedi ve nefsū' l-emr-de tūrgāūt tabīr olunan tātār-dan ḵālmāḡ dedikleri ṭā'ife musulmān olmayup ḵaldı" ('Abd al-Ghaffār Qırımı 1924, p. 38)

칼마크의 기원에 대한 또다른 설명은 16세기 우즈베크 사서 『선집(*Majmū' at-tavārikh* → 選集)』에 나오는데, 이 책은 우즈베크를 구성하는 92개 지파에 대한 유사역사(類似歷史)적 설명을 제공한다(이 사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Romodin 1973, pp. 200-03을 참고). 이에 따르면, 칼마크인들은 선지자의 시대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92명의 ‘구즈(Ghuz)’ 중 한 명이었던 아버지인 칼마크(Qalmaq)가 죽은 뒤 이슬람을 저버린 아들들의 후손이었다.³⁶⁾

요컨대, 포스트 몽골 시대 중앙아시아에서, 칼마크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우즈베크 내지 타타르³⁷⁾를 의미했다.³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칼마크가 오이라트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원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몽골계와 튀르크계 비(非)무슬림 유목민을 포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선집』의 또 다른 유사역사적 기술에서는, 칼마크란 말이 칭기스 칸의 할아버지인 바르탄 칸(Bartan Khan)과 전쟁을 벌인 카라 키타이(Qara Khitai [울긴이 주: 서요(西遼)])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Saif ad-din 1996, p. 31).³⁹⁾ 카자크에서는 칼마크라는 이름이 오이라트인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을 신봉하던 튀르크계 알타이인(Altai-khizi)과 텔렝기트인(Telengits)을 지칭하는데도 사용되었다(Kara 2010, pp. 170-171).⁴⁰⁾

게다가, 위에서 인용한 우즈베크와 크림 타타르 사서들에서 칼마크가 우즈베크, 즉 타타르의 지파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은 포스트 몽골 시대 중앙아시아와 이슬람 세계에서 오이라트와 북원 몽골,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우즈베크나 타타르가 일반적으로 친족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⁴¹⁾ 대표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유명한 여행자 에블리야 첼레비(Evliya Çelebi; 1611-1687년경)는 오이라트와 크림 타타르, 티무르조, 칭기스 칸의 몽골을 친족으로 묘사하고, 통틀어 타타르라 불렀다. 예컨대, 크림 타타르의 도시 에스키 크림(Eski Kırım)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적었다.

에스키 크림 때문에, 훌레구의 타타르, 칭기스 칸의 타타르, 티무르의 타타르, 토크타므쉬 칸(Toqtamış Khan)의 타타르는 크림반도로 와서 공격과 약탈을 행한 뒤 떠났다.⁴²⁾

36) 페르시아어로 된 사본을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키르기즈어 번역본을 참고했다(Saif ad-din 1996, pp. 23-26).

37) 타타르와 우즈베크라는 이름은 조치 울루스와 그 계승국가의 유목민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동의어이다. 우즈베크는 대체로 우즈베크 칸(Uzbek Khan; 재위: 1313-41년)의 재위 이후 대부분의 중앙아시아의 저자들이 사용한 용어였고, 타타르는 모스크바 국가와 오스만조가 몽골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38) 『두스트 술탄 사(*Tārīkh-i Dūst Sulṭān*)』 또는 『칭기스의 서(*Chingīz-nāma*)』라 불리는 외태미쉬 하지(Ötāmiş Ḥājī)가 저술한 16세기 우즈베크 사서 또한 칼마크를 ‘비(非)무슬림’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 사서에서, ‘우즈베크인’들의 개종 이전에 이루어진 우즈베크 칸의 아버지의 장례식은 ‘칼마크의 관습(Qalmaqning qā'idasi)’에 따라 행해졌다고 묘사되었다(2008, p. 25, 82 [text]).

39) 카라 키타이가 튀르크계가 아니라 범(凡)몽골계였기 때문에 『선집』이 이들을 칼마크라 부른 것은 아니었다. 이슬람 세계에서 카라 키타이는 어쨌든 튀르크의 지파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예컨대 주즈자니(Jūzjanī; 1193년 출생)의 『나시르 계보(*Ṭabaqāt-i-Nāṣiri*)』에서 카라 키타이는 단지 ‘튀르크’라 불리었다(1970, p. 900; 1963, p. 94).

40) 티무르도 노가이 서사시에서 칼마크라 불리었다(Kara 2010, p. 172).

41) 앞에서 인용한 『선집』에서 칼마크(카라 키타이와 오이라트)와 구즈(Ghuz), 키르기즈(Qirghiz), 몽골은 모두 친척으로 서술되었다. 이들은 모두 야벳(Japheth)의 손자 오구즈 칸(Oghuz Khan)의 아들 몽골 칸(Mongol Khan)의 후예였다(Saif ad-din 1996, pp. 22-26, 30-31). 따라서 17세기의 사파비조 역시 오이라트를 우즈베크의 지파로 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Rota 2006, p. 194).

42) “bu Eski Kırım sebebiyle Hulāgū tatar ı ve Cingiz Hān tatar ı ve Timur Leng tatar ı ve

에블리야 첼레비는 또한 저서에서 오이라트를 “칼마크 타타르[Kalmık Tatarı]는 세계의 여행자”라고 묘사했다 (Evliya Çelebi 2000, p. 309, 329). 그는 심지어 오스만조조차 타타르의 지파라고 기록했다. “심지어 오스만조와 모든 투르크멘 사람들도 타타르 사람에게서 나왔다 (hattâ Āl-i Osmân ve cumle kıvam-i türkmân dahi kıvam-i tatar’dır)” (2000, p. 194) 아닌게 아니라, 무슬림 저자들도 대체로 에블리야 첼레비와 비슷한 생각이어서, 타타르(Tatar)가 아니라 투르크(Turk)라는 집단명을 사용했기는 하지만, 여러 튀르크계와 몽골계 집단들을 친족으로 간주했다 (Lee 2016, pp. 108-111, 118-121).

따라서, 칼마크라는 용어가, 포스트 몽골 시대 일부 중앙아시아 저자들에 의해 몽골고원의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오이라트와 몽골이 같은 집단으로 여겨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칼마크는 오이라트와 동의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이라트인과 북원 몽골인뿐 아니라 내륙아시아의 여타 투르크어 및 몽골어 사용 비(非)무슬림 유목민에 적용되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였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포스트 몽골 시기 중앙아시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오이라트인과 북원 몽골인은 보다 큰 내륙아시아인 집단(우즈베크 또는 타타르라고도 불린) 비(非)무슬림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당대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오이라트인은 칼마크인이지만 ‘서몽골인’이 아니었다.

튀르크화 된 칭기스조와 티무르조의 오이라트와 몽골에 대한 시각

1666년 오늘날 칼미크⁴³⁾인의 조상이 되는 볼가 지방의 오이라트를 방문한 에블리야 첼레비는 오이라트와 몽골을 구별했다. 구체적으로 적자면, 그는 칼마크라는 말은 오이라트에게만 사용하고, 칭기스 칸과 몽골을 지칭할 때는, 타타르(Tatar)와 몽골[Moğu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⁴⁴⁾ 또한, 그는 몽골이라는 용어를 오이라트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에블리야 첼레비에게 있어, 칭기스 칸의 진정한 후계자는 오이라트(칼미크)가 아니라 크림 타타르였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칭기스조와 티무르조 국가들에서 편찬된 사서들도 오이라트를 ‘칼마크’라 부르면서도, 몽골과 동일시하지 않았다.⁴⁵⁾ 앞서 인용된 『선집』에서 오이라트(칼마크)는 칭기스 칸의 아들 툴루이(Tuluy)가 옹 칸이 이끄는 몽골군을 통해 격파한 적들로 등장한다 (Saïf ad-din 1996, pp. 40-41).⁴⁶⁾ 마찬가지로, 샤라푸딘 알리 야즈디는 몽

Tohtamış Hân tatarları Kırım’ a gelüp nehb [ü] gâretler edüp gitmişlerdir” (Evliya Çelebi 2000, p. 251).

43) 칼미크(Kalmyk)는 칼마크의 러시아어식 표현이다.

44) 예를 들어, 에블리야 첼레비는 칭기스 칸이 “타타르 사람들의 조상(kıvam-i tatarın ecdâdı)”이라 불렀다 (2000, p. 309). 그는 또한 몽골을 제대로 부를 때는 “몽골 종족(moğol kıvamı)”이라 칭했다 (pp. 239, 299, 310).

45) 이들이 당대 북원 몽골을 과거의 몽골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는, 북원 몽골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나, 몽골어로 된 알탄 칸의 전기 『‘보석의 영롱함’이라 일컬어지는 경전(Erdeni tunumal neretü sudur: 이하 『보감[寶鑑]』)』에서 북원의 칭기스조는 튀르크어를 사용하게 된 모굴리스탄의 칭기스조를 친척으로 인지하고 있다. 『보감』은 알탄 칸이 보낸 사신이 모굴(동부 차아다이)의 통치자 샤 칸(Shah Khan; 재위 1543-70년)에 이르기까지 차아다이 왕통의 계보를 읊어, 샤 칸이 감동받아 알탄 칸에게 공물을 보내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마찬가지로, 또다른 모굴 통치자 압둘카림(‘Abd al-Karīm; 재위 1566-94년)은 알탄 칸을 형으로 인정하며, 알탄 칸의 사절에게 “우리 나라를 합칩시다!”고 말했다고 한다 (Elverskog 2003, p. 239, 278 [원문], pp. 109-110, 168-169 [번역]).

46) 흥미롭게도, 이 유사역사적 일화에서 옹 칸은 케레이트의 통치자가 아니라, 조치 울루스의 칸인

골 또는 칭기스 칸을 칼마크라고 부르지 않았다. 몽골 두글라트에 속한 모굴, 무함마드 하이다르 두글라트 미르자 역시 오이라트(칼마크)를 몽골[Mughūl]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몽골을 옛 차아다이 칸국의 구성원들, 즉 모굴(동부 차아다이인)와 티무르조(서부 차아다이인)에게만 적용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모굴(Moghul)은 두 지파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모굴(Moghul)이고, 다른 하나는 차가타이(Chaghatay)이다.”⁴⁷⁾ 그의 외사촌이자 티무르조 무굴 제국(Timurid Mughal Empire)의 시황제(始皇帝)인 자히루딘 무함마드 바부르(Ẓahīr al-Dīn Muḥammad Babur; 재위 1526-30년)도 회고록에서 오이라트(칼마크)가 몽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⁴⁸⁾ 몽골[Moḡul]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몽골이라는 말을 동부 차아다이인에게만 사용하고, 칼마크라 부르지 않았다. 칭기스조의 혈통을 이은 아불가지 바하두르 칸(Abū al-Ghāzī Bahādur Khan; 재위 1644-63년)도 저작 『투르크 계보(Şejere-i Türk)』에서 오이라트(칼마크), 더 구체적으로, 토르고트를 몽골과 구분했다. 내륙아시아 유목민에 대한 서술에서 아불가지 바하두르 칸은 토르고트가 오이라트에 속했다고 묘사했으나, 몽골의 지파와 연관짓지는 않았다(1970, pp. 45-46 [원문 & 번역]). 아불가지 바하두르 칸 역시 오이라트가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⁴⁹⁾ 몽골이라는 말을 오이라트(칼마크)를 지칭하는데 쓰지 않았고, 칼마크라는 이름을 몽골과 칭기스조에 붙이지도 않았다. 불가 타타르의 구전에 기초하여 17세기 후반 작성된 『칭기스의 책(Dāftār-i Čingiz-nāmā)』은 오이라트(칼마크)를 칭기스조와 구분지었다. 이 사서에 실린 칭기스 칸의 유사역사적 행적에 따르면, 칭기스조는 남편 두인 바얀(Duyīn Bayan)이 죽은 뒤 칭기스 칸을 낳은 알란 코아(Alan Qo' a)의 후손이었다(Usmanov & Ivanics (eds.) 2002, p. 45). 오이라트(칼마크)에 관해서는, 다만 그들의 왕족(törä)은 칭기스 칸의 할아버지 투마울 매르겐 칸(Tumaul Märgän Khan)에 의해 칼마크 땅으로 보내진 칭기스 칸의 삼촌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Usmanov & Ivanics (eds.) 2002, pp. 37-38).

중요한 점은, 튀르크화된 칭기스조와 티무르조가 스스로를 이전의 몽골 제국과 동일시하면서도, 오이라트(칼마크)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칭기스조와 티무르조의 계보를 정리한 『고귀계보(Mu'izz al-ansāb fī shajarat al-ansāb → 高貴系譜)』는 티무르를 몽골로 묘사했다. 티무르의 조상들과 신민들을 “모든 몽골 지파는 에르게네 쿤으로 간 두 사람의 후예”라고 적은 것이다.⁵⁰⁾ 티무르조 무굴 제국의 궁정 사가(史家) 아불파들(Abū al-Faẓl; 1602년 사망)은 티무르조가 몽골인(sha'b-i mughul)에 속했다며, 그들의 조상을 몽골인(ulūs-i mughul 또는 qaum-i mughul)이라 불렀다(2015, p. 198, 200, 212 [원문], p. 199, 201, 213 [번역]). 크림 칸 메흐메트 기레이(Meḥmet Girey; 재위 1514-23년)도 자신을 폴란드 왕에게 보낸 서신에서 몽골의 군주라 자칭하며 “대 오르다의 대칸 킵차크초원과 몽골의 제왕(pādshāh → 帝王) 메흐메드 기라이 칸(Meḥmed Girāy Khan)”라고

토크타미쉬(Toqtamīsh; 재위 1378년경-1395년)의 아버지로 등장한다.

47) “az ulūs-i arba' yikī mughūl ast. Va mughūl bi-dū qism maqsūm shoda-ast. Yikī mughūl va digarī chaghatāy” (Muḥammad Ḥaidar Dughlāt 2004, p. 190).

48) 외삼촌 술탄아흐마드 칸(Sultān-Aḥmad Khan)이 알라차 칸(Alacha Khan)이라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바부르는 아래와 같이 적었다. “그들은 칼마크와 모굴의 말로 알라치(alachi)가 도살자를 뜻한다며, 술탄아흐마드 칸이 칼마크를 여러 차례 격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연유로 그를 알라치라 불렀다(하락)” (Babur 1995-1996, p. 17; 1993, p. 22)

49) 아불가지 바하두르는 칼마크에서 살던 때에 몽골어를 배웠다고 회고했다 (Abū al-Ghāzī Bahādur Khan p. 37 [원문]).

50) “tamāmat-i aqvām-i mughūl az nasl-i dau shakhṣand ki dar arkana qutūqūn rafta būdand” (Abuseitova 2006, fol. 3a).

적었다.⁵¹⁾ 우즈베크 정복자 무함마드 시바니 칸 역시 서정시 종류인 가잘(ghazal)을 지으면서, 이렇게 적었다. “울루스 전체가 나에게 포함되나, 나는 이 울루스에 국한되지 않네. 선과 악은 내 안에 있으나, 나는 이 몽골인에 국한되지 않네.”⁵²⁾ 시르 무함마드 미라브 무니스(Shīr Muḥammad Mīrāb Mūnīs)는 쿵그라트 우즈베크조, 즉 히바 칸국의 사서인 『환희의 천국(*Firdaws al-Iqbāl*)』에서 자신이 모시는 군주가 “몽골 집단(aqvām-i moḡul)”에 속한다고 적었다 (1988, p. 193; 1999, p. 82). 마흐무드 이븐 아미르 발리 발히(Maḥmūd b. Amīr Valī Balkhī)도 자신의 주군이자 발히의 토키아티무르조 우즈베크 군주인 나즈르 무함마드 칸(Nazr Muḥammad Khan; 재위 1606-42년, 1648-51년)과 우즈베크 왕조가 몽골이라고 적었는데, 『선인들의 미덕 속 비밀의 바다(*Baḥr al-asrār fī manāqib al-akhyār*)』에서 우즈베크 칸들을 서술한 부분의 소재목을 아래와 같이 붙였다.

축복받으신 노아의 아들 야벳으로부터, 두 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칼리프의 지위에 있는 나즈르 무함마드 칸에 이르기까지 몽골 칸들에 대한 묘사⁵³⁾

무함마드 시바니 칸의 궁정 사가 파들릴라 이븐 루즈비한 훈지(Faḏlullāh b. Rūzbihān Khunjī)도 『부하라 망명자의 서(*Mihmān-nāma-i Bukhārā*)』에서 카자크를 몽골[Tātār]의 후예인 존재라고 적었다.

과거에 칭기스 칸이 등장했을 때, 타타르(Tātār)의 군대라고 불리던 카자크 군대의 끔찍한 흉포함과 폭력성은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에 의해 기록되었다.⁵⁴⁾

술탄 카나예프(Sultan Qanayev)라는 카자크인 역시 19세기 러시아 민족지학자 니콜라이 그로데코프(Nikolaï Ivanovich Grodekov)에게 카자크인은 300 몽골의 후예라고 말했다. “모굴과 타타르라는 형제가 있었다. 카자크가 만들어진 시대부터. 몽골인은 타타르인과 싸워 패배했다. 전투에서 도망친 300명은 스스로를 삼백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Grodekov 1889, p. 2) 비슷하게, 19세기 후반의 카자크 역사학자 쿠르반알리 할리디(Qurbān-‘Alī Khālīdī)는 저서 『동방5사(*Tavārīkh-i khamsa-i sharqī* → 東方五史)』에서 카자크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몽골인과 타타르인의 후예라고 주장했다 (Qūrbānḡali Halid 2006, pp. 44-45, 209).

요컨데, 티무르조와 우즈베크, 타타르, 카자크 사가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몽골의 후예라고 보아, 당대 칼마크와는 구분지었다.

51) “ulu ordanung ulu ḥanī dešt-i ḳīpčāḳ barča moḡul pādšāhī Meḥmed Girāy Ḥan” (Veliaminof-Zernof 1864, p. 2).

52) “barča ulus mendā sīḡar, men bu ulusa sīḡmasam. Yaḥšī yaman mendā sīḡar, men bu moḡula sīḡmasam.” (Karasoy 1998, p. 184, 795; Bodrogligeti 1993-1994, p. 99).

53) “dar tauzīḥ-i aḥvāl-i khavāqīn-i mughūl az badv-i zuhūr-i ṣubḥ-i vujūd-i mas‘ūd-i Yāfis ibn Nūḥ ‘alayhimā al-salām tā ayyām-i bā farjām-i ḥazrat-i khilāfat-rutbat Nazr Muḥammad Khān” (Maḥmūd b. Amīr Valī Balkhī 1984, p. 17 [원문]).

54) “ṣaulat va ba’s-i shadīd-i ‘askar-i qazzāq ki dar zamānhā-i sābiq ki bi‘ādī-i zuhūr-i Chingīz Khān būd, īshān-rā lashkar-i tātār guftandī mashhūr va mazkūr-i alsina-i ‘arab va ‘ajam ast” (Faḏlullāh b. Rūzbihān Khunjī 1962, p. 213).

북원 몽골의 오이라트에 대한 시각: 외국인과 적

북원 몽골은 오이라트를 외적(qari daisun, 外敵)으로 보았다 (Atwood 2004, p. 420).⁵⁵⁾ 사강 세첸(Saγang Sečen)의 『몽골원류(*Erdeni-yin tobči*)』나 룽상단진(Lubsangdanjin)의 『황금사(*Altan tobči*)』 등 17세기 불교도 몽골의 연대기들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몽골과 계속 전쟁을 치른 오이라트를 몽골과는 다른 집단으로 묘사했다.⁵⁶⁾ 대표적으로 『몽골원류』에 기록된 에센 타이시(Esen Taisi; 1455년 사망)를 받은 오이라트 장수의 말이 두 집단이 가진 별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압둘라 세첸(Abdula Sečen)이라는 오이라트 장수는, 사강 세첸에 따르면, 북원 몽골이 견식(見識)이 나쁘다(nidün maγutu bolai)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몽골 민족(mongγol ulus)”이라 불렀다 (Saγang Sečen 1990, p. 109 [윤진이 주: 최학근 1985, p. 141]). 사강 세첸은 또한 오이라트가 ‘카리 다이손(qari daisun)’, 즉 몽골의 외적(外敵)이라고 적었다. 더 구체적으로, 압둘라 세첸은 에센 타이시에게 제위를 찬탈한 몽골 왕자 아그바르지 지농(Aγbarji jinong)를 죽일 것을 권하며, 아그바르지는 오이라트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카리 다이손이라고 말했다 (Saγang Sečen 1990, p. 111 [윤진이 주: 최학근 1985, p. 144]). 룽상단진에 따르면, 오이라트인들은 이 왕자가 이미 자신의 일족[töröl]과 국가[törü]를 배신한 전적이 있기에, 오이라트인과 오이라트 국가에 위협이 될 인물이라 했는데, 이 역시 오이라트와 북원 몽골이 서로를 별개의 집단으로 보았음을 알려준다 (Bawden 1955, p. 77 [원문], p. 166 [번역] [윤진이 주: 김방한 1973, p. 22]). 『황금사』에는 몽골의 계보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칭기스조는 알란 코아가 남편 도본 메르겐(Dobun Mergen) 사후 누런 빛에 의해 잉태한 보돈차르(Bodončar)의 후손이었다 (Bawden 1955, p. 38 [원문], p. 115 [번역] [윤진이 주: 김방한 1966, p. 139]). 그러나, 『황금사』는 오이라트를 이 몽골의 계보에서 언급하지 않았다.⁵⁷⁾ 대신 『황금사』는 오이라트를 이질적인 적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아다이 카간(Adai Qaγan)]의 뒤는 몽골의 정사(政事)를 오이라트(Oyirad)의 토강 타이시(Toγan Taysi)가 잡았다. 그의 뒤는 다이승 가한(可汗), 또 몽고의 정사를 오이라트의 에센 타이시(Esen Taysi)가 잡았다. (Bawden 1955, p. 37 [원문], p. 113 [번역] [윤진이 주: 김방한 1966, p. 136])

55) 일본의 오이라트사 전문가 미야와키 준코(宮脇淳子)도 몽골이 오이라트를 이질적인 존재(qari)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2000, p. 322; 1995, p. 101 [윤진이 주: 조병학 2000, p. 119]).

56) 본고에서는 몽골과 공생적 관계를 맺고 있던 오이라트를 추방하여 칭기스조의 패권을 복구한 다얀 칸(Dayan Khan)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얀 칸의 통합(synthesis)에 부랴트와 오이라트, 다우르(Daur) 등 몽골어 화자들도 결국 별개의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얀 칸의 통일이 오히려 오이라트와 몽골 사이의 차이를 더 강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57) 『몽골원류』에 나오는 칭기스조 계보에서 4 오이라트(Dörbön Oyirad)는 알란 코아와 관련이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알란 코아의 남편 도본 메르겐의 형인 도아 소코르(Du' a Soqor)의 네 아들의 후손이라고 적혀있다 (Saγang Sečen 1990, p. 47 [윤진이 주: 최학근 1985, p. 65] 을 보라). 이 기록은 다른 일부 북원 사료들에서 반복된다 (Sukhbaatar 2014, p. 122 참고). 사실 『몽골비사』에서 도아 소코르의 네 아들은 오이라트와 상관없는 몽골 부락인 도르벤(Dörben)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Rachewiltz 2004, p. 3 [윤진이 주: 유원수 2004, p. 25] 참조). 도르벤에 대해서는, Rashīd al-Dīn 1988, p. 149; Rashiduddin 1998-1999, p. 104 [윤진이 주: 김호동 2002, p. 321] 을 보라.

다른 복원 몽골 연대기들도 오이라트와 몽골을 별개의 집단으로 그리고 있다. 알탄 칸과 그 후예에 대한 사서인 『‘보석의 영롱함’ 이라 일컬어지는 경전(*Erdeni tunumal neretü sudur*: 이하 『보감』)』는 몽골을 “40만 몽골(*döcin tümen mongγ ol*)” (Elverskog 2003, p. 287 [원문], p. 179 [번역]) 내지 “모든 위대한 나라(*qamuγ yeke ulus*)” 라 부르고, 오이라트는 “오이라트 백성들(*oyirad-un irgen*)” 이라 칭했다 (Elverskog 2003, p. 242 [원문], p. 116 [번역]).

청대 편찬된 복원 칭기스조의 계보서인 『몽고세계보(蒙古世系譜)』⁵⁸⁾도 오이라트를 별개의 존재로 묘사했다. 『몽고세계보』는 오이라트를 칭기스 칸이 정복한 12개 왕국의 하나로 적었는데, 여기에는 카를루크(*Qarluq*)와 나이만, 위구르 등 튀르크계 집단들과, 만주의 여진 등 비(非)몽골 집단들이 포함되었다 (Lomi 1957, pp. 101-102: 6a-6b; 프랑스어 번역본은 Hambis 1969, pp. 172-174을 보라).

그 때에 백성을 해치는 12 나라가 있었다. (중략) 카를루크[*哈拉拉古忒* → *Qarluq*]의 군주는 아르슬란[*阿尔萨朗* → *Arslān*]이라 하였고, 오이라트[*威勒忒* → *Oyirat*]의 군주는 호도카 베키[*呼图哈白溪* → *Quduqa Beki*]라 하였으며, (중략) 위구르[*威古忒* → *Uyghur*]의 군주는 이디쿠트[*衣忒古忒* → *Idikut*]라 하였고, 나이만[*洒满* → *Naiman*]의 군주는 태양[*太阳* → *Tayang*]이라 하였으며, (중략) 주르첸[*朱尔漆代* → *jürčēt*]의 군주는 선종[*象崇* → *宣宗*]이라 하였다. 모두 폭력(暴戾) 무도(无道)하니,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옮긴이 주: **한문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다. “是时有四虐其民者十二国: … 哈拉拉古忒之君曰阿尔萨朗, 威勒忒之君曰呼图哈白溪, … 威古忒之君曰衣忒古忒, 洒满之君曰太阳, … 朱尔漆代之君曰象崇. 皆暴戾无道, 民不堪其苦.”** 羅密, 1985, p. 212]

한편, 복원 몽골은 이웃한 튀르크화된 칭기스조는 친척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몽골원류』에 따르면, 칭기스조 왕공과 그의 나이만 종자가 오이라트 통치자 에센 타이시로부터 탈출해 당시 몽골에서는 토그마그(*Toγmaγ*)라 불리던 조치 울루스로 도망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치의 후손인 토그마그 칸들은 우리의 일족(*töröl*)이다.” (Saγang Sečen 1990, p. 113 [옮긴이 주: 최학근 1985, p. 145. 한국어판의 번역 “토그마그(*Toγmaγ*)의 칸 주치(*jūči*)의 후예(後裔)가 우리의 일족(一族)이 되었다” 는 “토그마그의 칸 주치의 후예는 우리의 일족이다” 로도 새길 수 있다]⁵⁹⁾ 또한 앞서 언급했듯 『보감』에도 알탄 칸의 사절이 모굴인들에게 그들도 칭기스조의 후손임을 상기시켰다는 일화가 있는데, 알탄 칸이 모굴 군주를 친척으로 보았음을 알려준다. (Elverskog 2003, p. 239, 278 [원문], pp. 109-110, 168-169 [번역])⁶⁰⁾

58) 『몽고세계보(蒙古世系譜)』는 그 자신도 칭기스조였던 로미(Lomi)가 1735년 만주어로 적은 복원 칭기스조의 계보서인 『몽골 보르지기트 오복의 역사(*Mongγol Borjigid oboγ-un teüke*)』의 중국어 번역본으로 생각되며, 몽골어로는 1839년 번역되었다.

59) 토그마그(*Toγmaγ*)는 몽골에서 킵차크초원의 유목민을 부르는 명칭이었다.

60) 『보감』은 또한 알탄 칸이 오이라트 지도자들과 코다(*quda*: 결혼 동맹)를 맺었음을 전해준다 (Elverskog 2003, p. 240 [원문], p. 112 [번역]). 그러나 칭기스조는 콩기라트나 바를라스, 옹구트 등 여러 튀르크 · 몽골계 종족 및 고창 위구르, 카를루크, 고려(한국) 등 정주 복속 국가와 그러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따라서, 코다 관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정치 동맹이었고, 공통의 정체성에 기반했거나, 공통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오이라트의 시각: 독자적 몽골어 사용 민족

오이라트 저자들은 대체로 복원 몽골과 오이라트가 거대한 몽골어 화자 집단의 일부인 별개의 독립체라고 생각했다. 예컨대, 1690년경 준가리아에서 편찬된 오이라트 불교 학자 자야 판디타(Zaya Pandita)의 전기 『달빛(*Sarayin geresi*)』에서 오이라트와 몽골은 각각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오이라트와 몽골은 모두 “몽골어를 쓰는 이들(*mongγoli keleten*)”이었다 (Tsoloo & Rinchen (eds.) 1967, pp. 3-4 [윤진이 주: 이주엽 2002, pp. 28, 30. 여기서는 ‘몽골어권’으로 번역되었다. 자야 판디타 전기의 번역자 이주엽 선생은 본 논문의 저자 이주엽 선생과 동명이인이다] 을 보라).⁶¹⁾ 마찬가지로, 1640년 몽골 · 오이라트 동맹 조약의 결과 만들어진 『40과 4의 대법전』 [윤진이 주: 한국에서는 『몽골-오이라트 법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⁶²⁾은 오이라트와 몽골을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고, 함께 묶어서는 ‘대 아이마그 울루스’라 하였는데, 아마 이는 만주 국가에 대항하는 몽골 · 오이라트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Taupier 2014, p. 104) 가방 샤라브(*Gabang Šarab*)가 1737년에 적은 오이라트의 기원과 역사를 다룬 『4 오이라트 역사(*Dörbön oyirodiyın töüke*)』는 오이라트와 복원 몽골을 별개의 집단으로 보았는데, 예를 들어 오이라트는 도르본 오이로드(*Dörbön Oyirod*: 4 오이라트), 몽골은 도칭 몽골(*Döčing Mongγoli*: 40 몽골)라 불리고 있다 (1967, p. 74).⁶³⁾ 『4 오이라트 역사』는 또한 도르보드와 준가르가 신성한 나무에서 태어난 혹은 성장한 아기라는 공통의 조상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 (Gabang Šarab 1967, p. 74). 중요한 점은 이같은 기원 설화가 몽골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이라트와 몽골은 준가르의 흥기로 이어지는 1623년의 몽골 · 오이라트 전투를 다룬 17세기 오이라트 사서 『4 오이라트가 몽골을 패배시킨 이야기(*Dörbön oyirad mongγolyigi daruqsan tuuji*)』에서도 별개의 종족으로 묘사되었다 (이 사서에 대해서는 Sukhbaatar 2014, p. 115을 참고). 예를 들어 저자는 전투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면서 몽골 80,000 대군이 “외래의 4 오이라트(*qari dörbön oyirad*)”를 공격했다고 적었고, “이렇게 4 오이라트가 몽골을 패배시켰다(*dörbön oyirad mongγoli daruqsan ene*)”며 글을 마치고 있다 (Gomboyev 1858, p. 198, 210 [원문], p. 213, 224 [번역]). 별개의 오이라트 정체성은 1937년 세르게이 발다예프(*Sergey P. Baldaev*)가 채록한 부랴트 구전 설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할하 몽골의 부랴트 침공에 대한 전설에서, 부랴트는 4 오이라트를 형성한 한 부락이었는데, 몽골 귀족들은 외래의 침공자로 묘사되었다 (Natsagdorj 2015, p. 6; Baldaev 2012, pp. 317-318).

외교라는 현실정치 세계(*realpolitik world*)에서 칼미크 칸 아유키(*Ayuki*; 1669-1724년)과 준가르 통치자 갈단 보속토(*Galdan Bošugtu*; 재위 1671-97년) 및 갈단 체링(*Galdan Čering*; 재위 1727-45년)은 칭기스조에 대해 얼마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만조

61) 자야 판디타의 전기를 영어 번역은 Taupier 2014, pp. 186-256 [윤진이 주: 이주엽 2002] 을 보라.

62) 『40과 4의 대법전』의 영어 번역은 Taupier 2014, pp. 149-185을 참고.

63) 그러나 19세기 익명의 칼미크 사가가 적은, 일명 『칼미크 칸들의 역사』라 불리는 사서는 칼미크인은 “몽골에서 기원(*mongγoli izuur*)”했다고 전한다 (Halkovic 1985, p. 104 [원문]). 이 사서는 볼가 지방의 오이라트인들이 ‘칼미크(*xalimaq*)’를 자칭으로 사용하고 난 뒤에 작성되었다. 몽골 이조르(*Mongγoli izuur*)와 할리마크(*xalimaq*)는 오이라트어 표기이다. 스티븐 할코비치(Stephen A. Halkovic)에 따르면, 이 사서는 “그 어떤 오이라트의 책들보다 서구식 역사서에 가깝다.” (Halkovic 1985, p. 25) 다른 19세기 오이라트 역사서들 일부에서도 오이라트는 몽골의 일부라고 적혀 있는데, Sukhbaatar 2014, pp. 117-118를 확인하라.

문서에 따르면 불가 지방에서 오이라트 권력이 절정에 있던 시기의 칼미크 통치자 아유키 칸은 칭기스 칸의 후손임을 자처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아유키 칸의 사절은 오스만 제국의 대재상에게 아래와 같은 구두 전갈을 전했다.

우리는 심지어 [러시아인들에게] 우리 모두[오이라트와 이쉬테크(Ishtek), 카라 칼파크(Qara Kalpak), 카자크]가 칭기스조로부터 나왔고, 같은 씨족에 속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결속된 사이다.⁶⁴⁾

아유키 칸은 아마도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에게 자신의 통치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칭기스조를 참칭했을 것이다. 아유키 칸이 이 전갈에서 칼미크와 같은 씨족에 속한다고 주장했던 집단은 이쉬테크(İşteki), 카라 칼파크, 카자크(Ḳırğız Ḳazāği)였다 (*Başbakanlık arşivi Name-i hümâyûn defteri* 6, p. 201; 바슈키르인을 지칭하는 이쉬테크에 대해서는 Khodarkovsky 1992, p. 146, note 47을 보라). 이들은 모두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카자크를 제외하면, 칭기스조가 아니었다. 따라서, 아유키 칸의 발언은 범(凡)몽골 정체성이라기 보다는 광의의 내륙아시아 유목민 정체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준가르 통치가 갈단 보속토와 갈단 체링은 외교 서신에서 비(非)몽골인, 별개의 오이라트 정체성을 표출했다. 예를 들어 1691년 러시아 차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갈단 보속토는 북원 몽골을 ‘적’이라고 불렀다. “몽골은 우리에게도, 당신에게도 적이기예, 저는 당신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락]” (Krueger 1969, p. 293 [원문], p. 294 [번역]) 갈단 체링 역시 만주에 대항한 군사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보낸 서신에서 북원 몽골과 공통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식을 보여주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원래 한 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서로 화목하여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갈단 보속토 칸(噶爾丹博碩克圖汗)으로 인해 여러분들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이 중국(中國)에 항복하였습니다. 부러지고 공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칭기스 칸(成吉思汗)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백성[人]의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유목[하는 곳]을 알타이(阿爾泰)로 옮기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더불어 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안락함을 누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의 친선을 이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전쟁이 난다면, 협력하여 함께 막아내겠습니다.⁶⁵⁾

다른 전갈에서 갈단 체링은 “할하(喀爾喀)와 오이라트(厄魯特)와 불교[法教]는 서로 같아, 본래 함께 화목했습니다. 갈단 보속토(噶爾丹博碩克圖)의 때에 이르러 화목함을 잃었습니다 [하락]” 라고 전했다.⁶⁶⁾ 요컨데, 갈단 체링은 공통의 종교, 과거의 우애, 지리적 인

64) “cümlemiz al-i Cengiziden ve bir uruđanımız birbirimizle ittifāk dahi eyledik” (*Başbakanlık arşivi Name-i hümâyûn defteri*, n° 6, p. 201).

65) “並云我等原在一處居住. 甚相和好. 因噶爾丹博碩克圖汗, 與爾等不睦. 各自散居. 後爾等投順中國. 當差納貢. 深為爾等憾之. 爾等系成吉思汗之後裔. 並非人之屬下. 何不將游牧, 仍移於阿爾泰. 與我會居一處. 共享安樂. 以聯舊好. 如有兵戎. 協力相距等語. 今將原書呈覽. 奏入. 報聞.” [옮긴이 주: 「청실록」의 내용은 한문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다] 이 서신은 청 제국 칙령[諭] 가운데 갈단 체링이 할하 몽골에 보냈다는 서술과 함께 실렸다 (清實錄 8: 世宗憲皇帝實錄 2, 1985, p. 484을 보라).

66) “喀爾喀 · 厄魯特 · 法教相同, 本屬和好. 及噶爾丹博碩克圖時失睦” (清實錄 8: 世宗憲皇帝實錄 2, 1985, p. 491).

접성만을 강조했다. 오이라트와 복원 몽골이 공통의 몽골 정체성을 지녔다는 인식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준가르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복원 몽골과 동일시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론

이 논문을 통해 오이라트와 몽골이 별개의 부락 기원과 역사를 지녔음을 보였다. 우선, 칭기스 칸이 몽골 울루스, 즉 국가를 세운 1206년, 몽골고원 북서부의 삼림지대에 거주하던 오이라트는 라시두딘의 분류에서 두를루킨 몽골과 니로운 몽골으로 이루어진 원(原)몽골 부락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둘째로, 몽골 제국의 해체 이후 오이라트는 도르본 오이라트, 즉 4 오이라트라는 유목연맹으로 발전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비(非)몽골 기원을 지닌 부락들로 구성되었다. 중요한 점은, 칼미크인과 현대 몽골공화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Y-염색체 DNA 조사는, 두 집단이 유전적으로 구별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오이라트를 ‘서몽골’로 지칭하는 현대 학계의 관행은 역사적 근거가 없지는 않다. 만청 국가는 오이라트를 몽골 ‘부락(部落)’의 하나로 취급했다. 또한 오이라트 작가들 역시 오이라트가 광의의 몽골어 화자 집단에 속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면서도 오이라트와 복원 몽골을 두 개의 별개 집단으로 간주했다. 현실 정치의 세계에서 준가르 통치자 갈단 보속토와 갈단 체링은 비(非)몽골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복원 몽골인들 역시 오이라트를 외적(qari daisun, 外敵)으로 간주했다. 게다가 포스트 몽골 시대 중앙아시아의 칭기스조와 티무르조 국가들의 여러 사가(史家)도 칭기스조와 티무르조를 몽골과 동일시한 반면 오이라트와 몽골을 구분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원나라의 붕괴 이후 3세기에 걸친 오이라트와 복원 몽골의 전쟁은 두 개의 독립된 유목민족의 분쟁이었지, ‘서몽골인’과 ‘동몽골인’ 사이의 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이 현재 몽골 인민 공화국에 거주하는 오이라트 부락들과 현대 칼미크인들 중 이들이 몽골인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적 오이라트는 몽골어족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이라트인은 몽골인이 아닌 오이라트인으로서 포스트 몽골 시대에 몽골고원과 킵차크초원에서 칭기스조의 패권을 약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내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만주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오이라트는 흉노와 돌궐을 각각 대체한 선비와 위구르 같은 새로운 내륙아시아의 지배적 유목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본 저자는 내륙아시아사 연구자들이 역사적 오이라트를 흉노와 선비, 돌궐, 위구르, 키르기즈, 몽골과 같은 독립적인 내륙아시아 민족 내지 유목연맹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오이라트인을 단순히 ‘서몽골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위구르인이나 키르기즈인을 ‘북돌궐인’으로, 우크라이나인을 ‘남러시아인’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참고문헌

- ‘Abd al-Ghaffār Qīrīmī 1924 *Umdet ül-tevarikh*, supplement to *Türk Tarih Encümeni Mecmuası* (Istanbul, Najīb ‘Āsim).
- Abilev, S., Malyarchuk B., Derenko M., Wozniak M., Grzybowski T. & I. Zakharov 2012 The Y-chromosome C3* star-cluster attributed to Genghis Khan’s descendants is present at high frequency in the Kerey clan from Kazakhstan, *Human Biology* 84(1), pp. 79–89. (DOI: 10.3378/027.084.0106)
- Aboul-Ghâzi Bêhâdour Khân [1871–1874] 1970 *Histoire des Mongols et des Tatares par Aboul-Ghâzi Bêhâdour Khân* (Amsterdam, Philo, Petr I. Desmaisons).
- Abu’l-Fazl 2015 *The history of Akbar*, volume 1., W. M. Thackston (trans. &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Abu’l Ghâzi Bahâder 1729 *A general history of the Turks, Moguls, and Tatars, vulgarly called Tartars.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countries they inhabit*, vol. 2 (London, Printed for J. & J. Knapton, J. Darby, A Bettesworth, F. Fayram, J. Osborn & T. Longman, J. Pemberton, C. Rivington, F. Clay, J. Batley, & Aaron Ward).
- Abuseitova, M. Kh. 2006 *Mu’izz al-ansâb fī shajarat al-ansâb*, Istoriya Kazakhstana v persidskikh istochnikakh 3 (Almaty, Dayk).
- Ando, Sh. 1992 *Timuridische Emire nach dem Mu’izz al-ansâb. Untersuchung zur Stammesaristokratie Zentralasiens im 14. und 15. Jahrhundert*, Islamkundliche Untersuchungen 153 (Berlin, Klaus Schwarz).
- Atwood, C. P. 2004 *Encyclopedia of Mongolian and the Mongol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 2012 Banner, otag, thousand. Appanage communities as the basic unit of traditional Mongolian society, *Mongolian Studies* 34, pp. 1–76.
- 2013 Mongols, Arabs, Kurds, and Franks. Rashīd al-Dīn’s comparative ethnography of tribal society, in A. Akasoy, R. Yoeli-Tlalim & Ch. Burnett (eds.), *Rashīd al-Dīn as an agent and mediator of cultural exchanges in Ilkhanid Iran* (London, Wartburg Institute), pp. 223–50.
- 2015 The administrative origins of Mongolia’s ‘tribal’ vocabulary, *Eurasia: Statum et Legem* 1(4), pp. 7–45.
- Badamhatan, S. 1987 *BNMAU-iin ugsaatinii züi boty 1: khalkhiin ugsaatinii züi* [몽골 인민 공화국 민족연구, 1권: 할하 민족연구] (Ulaanbaatar, Sinzlech Uchaany Akademi).
- Baldaev, S. P. 2012 *Rodoslovnye predaniya i legendy buryat* [부랴트 계보사와 전설 연구] (Ulan-Ude, Izdatel’ stvo BGU).
- Başbakanlık arşivi Name-i hümâyûn defteri*, n° 6.
- Bawden, Ch. 1955 *The Mongolian chronicle Altan Tobči*. Text, translation and critical notes, Göttinger Asiatische Forschungen 5 (Wiesbaden, O. Harrassowitz).
- 김방한 1966 「黃金史研究(一)」, 『東亞文化』 6 pp. 123–63.
- 김방한 1973 「『黃金史』研究」, 『白山學報』 15, 3–35.

- Bodrogligeti, A. J. E. 1993-1994 Muḥammad Shaybānī Khan' s Apology to the Muslim Clergy, *Archivum Ottomanicum* 13, pp. 85-100.
- Boyle, J. A. & G. E. Wheeler 2016 Kalmuk, in P. Bearman, Th. Bianquis, C. E. Bosworth, E. van Donzel & W. P. Heinrichs (eds.), *Encyclopaedia of Islam* THREE (Brill, online URL: http://referenceworks.brillonline.com.myaccess.library.utoronto.ca/entries/encyclopaedia-of-islam-2/kalmuk-COM_0429, 2016년 6월 1일 확인).
- Crossley, P. K. 2006 Making Mongols, in P.K. Crossley, H.F. Siu, D.S. Sutton (eds.), *Empire at the margins. Culture, ethnicity and frontier in early moder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58-82.
- Derenko, M. V., Malyarchuk B. A., Wozniak M., Denisova G. A., Dambueva I. K., Dorzhu C. M., Grzybowski T. & I. A. Zakharov 2007 Distribution of the male lineages of Genghis Khan' s descendants in northern Eurasian populations, *Russian Journal of Genetics* 43(3), pp. 334-337. (DOI: 10.1134/S1022795407030179)
- Dulik, M. C., Osipova L. P. & T. G. Schurr 2011 Y-chromosome variation in Altaian Kazakhs reveals a common paternal gene pool for Kazakhs and the influence of Mongolian expansions, *PLoS One* 6(3)
- Elverskog, J. 2003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Leiden, Brill).
- Evliya Çelebi 2000 *Evliya Çelebi Seyahatnâmesi*, vol. 7 (Istanbul, Yapı Kredi Yayınları).
- Faḡlallāh b. Rūzbihān Khunjī. 1962 *Mihmān-nāma-i Bukhārā. Tārīkh-i pādshāhī-i Muḥammad Shībānī* (Tehran, Bungāh-i Tarjuma va Nashr-i Kitāb).
- Fisher, A. 1978 *The Crimean Tatars*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ress).
- Frank, A. J. 2009 The Mongōl-Qalmāq bayānī. A Qing-era Islamic ethnography of the Mongols and Tibetans, *Asiatische Studien/Etudes Asiatiques* 63 (2), pp. 323-347.
- Gavang Sharav [Гаванг Шарав] 1967 Gavang Sharav Dörvön Oyrдын түүх, in Zh. Tsooloo & Rinchen (eds.), *Biography of Caya Pandita in Oirat Characters*, Corpus scriptorum Mongolorum: Institutii Linguae et Litterarum Academiae Scientiarum Reipublicae Populi Mongolici, Tomus V, Fasc. 2-3 (Ulaanbaatar, Shinjlekh Ukhaany Akademyiin Khevllel).
- Gomboyev, L. G. 1858 *Altan-tobchi mongol' skaya letopis' v podlinnom tekste i perevode, s prilozheniyem kalmytskago teksta Istorii Ubashi-Khuntaydzhiya i ego voyny s oyratami*, Trudy Vostochnago otdeleniya Imperatorskago arkheologicheskago obshchestva 6 (St. Petersburg, v Tipografii Imperatorskoy akademii nauk).
- Grodekov, N. I. 1889 *Kirgizi i karakirgizy Syr-Dar' inskoi oblasti*, vol. 1 (Tashkent, Tipo-Litografya S. I. Lakhtina).
- Grousset, R. 1939 *L' Empire des steppes. Attila, Gengis-khan, Tamerlan* (Paris, Payot).
- 김호동 · 유원수 · 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서울: 사계절).
- Haenisch, E. [1937] 1962 *Manghol un niuca tobca' an (Yüan-ch' ao pi-shi)*, *Die Geheime*

- Geschichte der Mongolen aus der chinesischen Transkription (Ausgabe Ye Teh-hui) im mongolischen Wortlaut wiederhergestellt*, vol. 2, *Wörterbuch zu Manghol un niuca tobca' an (Yüan-ch' ao pi-shi)* (Wiesbaden, Steiner Verlag).
- Halkovic, S. A. Jr. 1985 *The Mongols of the West*, Indiana University Uralic and Altaic Series 148 (Bloomington, RIAS, Indiana University).
- Hambis, L. 1969 *Documents sur l'histoire des Mongols à l'époque des Ming*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Haydar Dughlat [Muḥammad Ḥaidar Dughlat] 1996 *Tarikh-i-Rashidi. A history of the khans of Moghulistan*, W. M. Thackston (trans. & ed.), 2 vols., *Sources of Oriental Languages and Literatures* 37-3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Howorth, H. H. 1876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part 1, *The Mongols proper and the Kalmuks* (London, Longmans, Green, & Co.).
- Irmukhanov, B.B. 2006 *Usun' i etnogenez kazakhskogo naroda* (Almaty, Nash Mir).
- İnalçık, H. 1955 Kırım hanlığı, *İslâm Ansiklopedisi*, vol. 6 (Istanbul).
- Jamsran, L. (ed.) 2003 *Mongol ulsyn tүүkh*, vol. 3, *XIV zuuny dund üeyes XVII zuuny ekhen üye* [몽골의 역사 3권: 14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Ulaanbaatar, Mongol Ulsyn Shinjlekh Ukhaany Akademi Tүүkhiin Khüreelen).
- 2010 The crisis of the Forty and the Four, in D. Sneath & C. Kaplonski (eds.), *The History of Mongolia*, vol. 2, *Yuan and late medieval period* (Folkestone, Global Oriental), pp. 497-507.
- Kara, D. S. 2010 “Kalmak”. The enemy in the Kazak and Kirghiz epic songs,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63 (2), pp. 167-178. (DOI: 10.1556/AOrient.63.2010.2.3.)
- Karasoy, Y. (ed.) 1998 *Şiban Han dîvânı* (Ankara, Türk Dil Kurumu).
- Katoh, T., Munkhbat B., Tounai K., Mano S., Ando H., Oyungerel G., Chae G.T., Han H., Jia G.J., Tokunaga K., Munkhtuvshin N., Tamiya G. & H. Inoko 2005 Genetic features of Mongolian ethnic groups revealed by Y-chromosomal analysis, *Gene* 346, pp. 63-70.
- Khodarkovsky, M. 1992 *Where two worlds met. The Russian state and the Kalmyk nomads, 1600-1771*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rueger, J.R. 1969 Three Oirat-Mongolian diplomatic documents of 1691, *Central Asiatic Journal* 12(4), pp. 286-289, 291-295.
- Lee, J. Y. 2016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term Turk and the nature of the Turkic identity of the Chinggisid and Timurid elites in post-Mongol Central Asia, *Central Asiatic Journal* 59, pp. 101-132.
- Ligeti, L. (ed.) 1971 *Histoire secrète des Mongols*, *Monumenta linguae mongolicae collecta* 1 (Budapest, Akadémiai Kiadó).
- Lomi 1957 *Mongol Borjigid oboḡ-un teüke. Meng-ku shih-hsi-p' u* (Wiesbaden, O. Harrassowitz).
- 羅密 1985 「蒙古家譜(上卷)」朱風·賈敬顏 共譯「漢譯蒙古黃金史綱」(內蒙古人民出版社, 1985), pp. 209-24.
- Maḥmūd b. Amīr Valī 1984 *Baḥr al-asrār fī ma'rifat il-akhyār*, vol. 1, part 1

- (Karachi, Pakistan Historical Society).
- Malyarchuk B., Derenko M., Denisova G., Khoyt S., Woźniak M., Grzybowski T. & I. Zakharov 2013 Y-chromosome diversity in the Kalmyks at the ethnical and tribal levels, *Journal of Human Genetics* 58, pp. 804-811.
- Mano, E. 1978 Moghūlistān, *Acta Asiatica.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Eastern Culture* 34, pp. 46-60.
- Manz, B.F. 1989 *The rise and rule of Tamerla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hāj Sirāj Jūzjānī 1963 *Ṭabaḳāt-i-Nāṣirī*, 2 vols (Kabul, Kābul Puhani maṭba'ah).
- 1970 *Ṭabaḳāt-i-Nāṣirī. A general history of the Muhammadan dynasties of Asia, including Hindustan*, H. G. Raverty (trans.), 2 vols (New Delhi, Oriental Books Reprint).
- Miyawaki, J. 宮脇淳子 1984 The Qalqa Mongols and the Oyirad in the seventeenth century, *Journal of Asian History* 18(2), pp. 136-173.
- 1995 『最後の遊牧帝国—ジュンガル部の興亡』 (東京, 講談社).
- 조병학 옮김 2000 『최후의 몽골유목제국』 (서울, 백산출판사).
- 2000 The legitimacy of khanship among the Oyirad (Kalmyk) tribes in relation to the Chinggisid principle, in R. Amitai-Preiss & D. O. Morgan (eds.), *The Mongol Empire and Its Legacy*, Islamic History and Civilization 24 (Leiden, Brill), pp. 319-31.
- 2003 The Dzungars and the Torguts (Kalmuks) and the peoples of Southern Siberia, I. History of the Dzungars: introductory survey, in A. H. Dani (e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 5 (Paris, Unesco), pp. 141-51.
- Muḥammad Ḥaidar Dughlat Mīrṣā 2004 *Tārīkh-i Rashīdī* (Tehran, Mīrās-i Maktūb).
- Muḥammad Yūsuf Munshī 2001 *Tazkira-i Muqīm Khānī* (Tehran, Mīrās-i Maktūb).
- Munkh-Erdene, Lhamsuren 2011 Where did the Mongol Empire come from? Medieval Mongol ideas of people, state and empire, *Inner Asia*, 13 (2), pp. 211-37.
- Ñag-dBañ Blo-bZaṅ rGya-mTSho 2008 *The song of the queen of spring, or, a history of Tibet*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and Aditya Prakashan).
- Natsagdorj, T. B. 2015 On the people of Khariad (Qariyad), *Études mongoles & sibériennes, centrasiatiques & tibétaines* 46 [online, URL: <http://emscat.revues.org/2490>].
- Okada, H. 岡田英弘 1984 Mongol chronicles and Chinggisid genealogies,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27, pp. 147-54.
- 1987 Origins of the Dörben Oyirad, *Ural-Altäische Jahrbücher* 7, pp. 181-211.
- Ötämiš Ḥājī 2008 *Čingīz-Nāma. Introduction, annotated translation, transcription and critical text*, Studia Culturae Islamicae 94 (Tokyo,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s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 Pelliot, P. 1960 *Notes critiques d'histoire kalmouke*, texte, Oeuvres posthumes de Paul Pelliot 6 (Paris, Librairie d'Amérique et d'Orient).
- Qurbanḡali Halid 2006 *Tauar ih hamsa: bes tarih* (Astana, Altyn kitap).

- Rachewiltz, I. de (trans. & ed.) 2004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2 vols (Leiden, Brill).
- 유원수 역주 2004 『몽골 비사』 (파주, 세계절출판사).
- Rashīd al-Dīn Faḡlullāh Hamadānī 1988 *Jāmi‘ al-tavārīkh* (Tehran, Intishārāt-i Iqbāl).
- 김호동 역주 2002 『라시드 앓 딘의 집사 1: 부족지』 (서울, 세계절출판사).
- Rashiduddin Fazlullah [Rashīd al-Dīn Faḡlullāh Hamadānī] 1998-1999 *Jami ‘u’ t-tawarikh (Compendium of Chronicles). A history of the Mong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 Romodīn, V. A. 1973 *Materialy po istorii kirgizov i Kirgizii*, vol. 1 (Moscow, Nauka).
- Rota, G. 2006 Safavids and Kalmyks in the 17th century. A preliminary assessment, in A. Panaino & R. Zipoli (eds.), *Proceedings of the 5th Conference of the Societas Iranologica Europaea*, vol. 2, Classical & Contemporary Iranian Studies (Milan, Mimesis).
- Saḡang Sečen 1990 *Erdeni-yin Tobci (‘Precious Summary’)*. A Mongolian chronicle of 1662. M. Gö, I. de Rachewiltz, J.R. Krueger & B. Ulaan (ed.), vol. 1, The Urga text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최학근 역주 1985 『蒙古諸汗 源流의 寶網 (蒙古源流)』 (서울, 현문사).
- Saīf ad-dīn ibn damullo Shakh Abbas Aksikenti 1996 *Tarykhtardyn zhyīnagy (‘Mazhmu atut-tavorikh’)* (Bishkek, ‘Akyl’ mamkontserni).
- Seyfī Çelebī 1968 *L’ ouvrage de Seyfī Çelebī. Historien Ottoman du XVIe siècle* (Paris, Librairie Adrien Maisonneuve).
- Sharaf al-Dīn ‘Alī Yazdī 1957 *Ẓafar-nāma. Tārīkh-i ‘umūmī mufaṣṣil-i Irān dar daura-i Tīmūrīyān* (Tehran, shirkat-i saḡāmī-i chāp-i rangīn).
- 이주연 2020 「티무르朝 史書, 야즈디 撰 『勝戰記』 (Zafar-nāma)의 譯註」,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 Shīr Muḡammad Mīrāb Mūnīs & Muḡammad Rīzā Mīrāb Āgahī 1988 *Firdaws al-Iqbāl: History of Khorezm* (Leiden, Brill).
- 1999 *Firdaws al-Iqbāl. History of Khorezm* (Leiden, Brill).
- Sneath, D. 2007 *The headless state. Aristocratic orders, kinship society, and misrepresentations of nomadic Inner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tein, R.A. 1959 *Recherches sur l’ épopée et le barde au Tibe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Sukhbaatar, N. 2014 Clear scripts sources on Oirat history. Classification, values, and significance, in *Oirat People. Cultural Uniformity and Diversification*, Senri Ethnological Studies 86 (Osaka,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 Sultanov, T. I. 1982 *Kochevyye plemena Priaral’ ya v XV-XVII vv. (Voprosy etnicheskoy i sotsial’ noy istorii)* (Moscow, Nauka).
- Taupier, R. P. 2014 The Oirat of the early 17th century. Statehood and political ideology. Ph.D. dis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Tizengauzen, V. G. 1941 *Iz vlecheniya iz persidskikh sochineniy*, vol. 2 of *Sbornik materialov, otnosyashchikhsya k istorii Zolotoy ordy* (Moscow & Leningrad, Izd-vo

- Akademiya nauk SSSR).
- Tsoloo, Zh. & Rinchen (eds.) 1967 *Biography of Caya Pandita in Oirat characters*. Corpus scriptorum Mongolorum: Instituti Linguae et Litterarum Academiae Scientiarum Reipublicae Populi Mongolici, V(2-3) (Ulaanbaatar, Shinjlekh Ukhaany Akadyemiin Khevlél).
- 이주엽 2002 「자야 판디타傳」 譯註,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 Usmanov, A.M. & M. Ivanics (eds.) 2002 *Das Buch der Dschingis-Legende (Däftär-i Ćingiz-nāmā)*, Studia Uralo-Altaica 44 (Szeged, University of Szeged).
- Valikhanov, Ch. 2009 Predaniya i legendy bolshoy Kirgiz-Kaysatskoy ordy, in S.F. Mazhitov, G.K. Anes & E.Zh. Valikhanov, *Izbrannye proizvedeniya* (Almaty, Izdatel' stvo Arys), pp. 455-59.
- Veliaminof-Zernof, V. 1864 Matériaux pour servir à l'histoire du Khanat de Crimée. Extrait, par ordre de l'Académie impériale des sciences, des archives central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à Moscou (St. Petersburg).
- Wu, C.Y. 1941 Who were the Oirats?, *Yenching Journal of Social Studies* 3(2), pp. 174-219.
- Yudin, V.P. 2001 O rodoplemennom sostave mogulov Mogulistana i Mogulii i ikh etnicheskikh svyazyakh s kazakhskim i drugimi sosednimi narodami, in V.P. Yudin, *Tsentral' naya Aziya v XIV-XVIII vekakh glazami vostokoveda* (Almaty, Dayk), pp. 72-95.
- Zahīr al-Dīn Muḥammad Babur 1995-1996 *Bābur-nāma (Vaḡāyī')*, 2 vols (京都, 松香堂).
- Zahiruddin Muhammad Babur Mirza 1993 *Baburnam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Zerjal, T., Wells R.S., Yuldasheva N., Ruzibakiev R. & C. Tyler-Smith 2002 A genetic landscape reshaped by recent events. Y-chromosomal insights into Central Asia, *Th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71(3), pp. 466-82. (DOI: 10.1086/342096)
- 歐陽修 · 宋祁 2003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 김성희 역주, 하원수 · 김정희 교열 2011 「북적전」, 김유철 · 하원수 · 김정희, 「신당서 외국전 역주 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 631-69.
- 정재훈 역주, 하원수 · 김정희 교열 2011b 「회골전」, 김유철 · 하원수 · 김정희, 「신당서 외국전 역주 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 371-544.
- 劉昫 2002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 정재훈 역주, 하원수 · 김정희 교열 2011a 「회홀전」, 김유철 · 하원수 · 김정희, 「구당서 외국전 역주 上」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 215-322.
- 李延壽 2003 北史 (北京, 中華書局).
- 정재훈 · 최진열 역주, 하원수 교열 2009 「돌궐 · 철륵전」, 김유철 · 하원수, 「북사 외국전 역주 下」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 441-561.
- 鄂爾泰 1985 清實錄 8: 世宗憲皇帝實錄 2 (北京, 中華書局).
- 魏徵 2008 隋書 (北京, 中華書局).
- 정재훈 · 최진열 · 김호 역주, 하원수 교열 2009 「북적전」, 김유철 · 하원수 「주서 · 수서 외국전 역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 255-367.
- 張廷玉 1974 明史 (北京, 中華書局).

→ 김선혜 역주, 송정수 교열, 2012, 「달단전」, 김유철 · 하원수 · 박지훈 · 송정수 · 김정희, 『명사 외국전 역주 3: 외국전 하』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 665-798.

→ 송정수 역주, 송미령 교열, 2012, 「와랄 · 타안 · 복여 · 태녕전」, 김유철 · 하원수 · 박지훈 · 송정수 · 김정희, 『명사 외국전 역주 3: 외국전 하』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 799-59.